朝鮮日報

第三千五百九十七號 【一】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火曜日】 昭和六年一月六日 【第三種郵便物認可】 【日刊】

夕刊八面 朝刊四面

社說

普校學父兄總奮起
雜用品價와授業料輕減要求

一

不況이深刻하다 米價가어처구니업시떨어젓다 朝鮮人收入의大宗인 一元米인 米穀價가 半減以下의데 財產의基本인土地도 그價格은大低落의途程을 지금에도쏟아내려가고잇다 이리하야 借金및 其他支拂義務를가진者의 負擔은倍加하고 事業會社의資本評價에는크게빈구멍이생겻다 信用貸出의擔保價格等에도 여간이아닌間隔이생겻다 이와가티되엇스되 工產品은그분수로 價格이떨어지지아니하고 公課金과 官營品價格과 밋그使用料等은 조금도減해질번도아니하엿다 이것은實際로日常的인利害關係에서 먼저切實한自衛感을닐으키는 一般人民의 하로도等閑히할수업는바가아니엇다 그의第一着의緊切한要求가 數萬名退學兒童을 내인普通學校의學父兄들로부터 이러난것은當然하다 始作이半이다 그初一念대로나아갈것이다

二

各地方의通信은 연(連)報한다 月謝金을못내고 또는敎科書나其他學用品을살수업서 스스로退學한者 몃千名식이오 或은月謝金안낸者를 한꺼번에몃十名식 退學시켯다는것이오 그外에도이에딸어생긴 不祥事는 자못적지안햇다 昨年四月부터十月末까지 月謝金未納으로 因해 學校門을쫏겨나간者가 二萬六千餘名이다 月謝金未納과이러한反面에 敎科書 其他學用品을장만하지못하여서 苦生하는者와 밋畢竟은 學校를그만두게되는者가 또적지안할것이다 이것은다만어린人生에게對한깁흔同情心으로서만이아니오 實로人民의文化的存立과 밋그社會的繁榮의때문에決코어름어름看過할바아니다 利害는 스스로겪거보는者처럼 똑바로알을수는업는것이오 利害는또스스로의切實한要求에依해서만 비로소貫徹될수잇는것이다 各層의士女들은 이問題를가장有利하게 골의學父兄으로서의 가장合理한方法을맨들도록할것이다 무엇보담도團結이다

三

月謝金을안내거달라고 學童들自身이 學校에모이어 [illegible] 승갱이를 하얏다고한다 어쉬햇든지자미업는일이다 初等敎育이 義務敎育으로되는것은萬國의通法이다 朝鮮의政治的社會的諸條件이 아즉여기에까지못갓스나 나히어린學童으로도이問題에干與하지안흐면안된다는것은얼마나重大한일이오 또는月謝金을안낸스나어서가라고아니하면아니되는스승들의處地도敎化上重大한問題이다 하물며學齡兒童의二三割도就學하지못하는朝鮮의 [illegible] 學校를단이다가도못단이다하는것은 [illegible] 더욱히내아들과딸들을 學校에보내고잇는 [illegible] 學父兄들로서는 이증에매우熱心으로 그러나또매우冷靜히 이일을도모해야할것이다

四

敎科書갑을 내리자는것은輿論으로된지오래다 [illegible] 普通學校敎科書 [illegible] 朝鮮總督府 [illegible]

獨逸「루ー르」炭田
總罷業形勢惡化
婦女子外지도男裝코加勢
警官隊와衝突로死者一名

【케룬(獨逸)三日發】勞働組合의幹部들은必死的으로從業勞働者를指導하고잇는데「루ー르」炭坑地方罷業은 形勢는益益惡化하야六萬의坑夫中多數는이미罷業中이다 그리고共產黨員等이男裝한婦人들과共히坑口에와서보면서罷業防害의入坑을阻止하고잇는中임으로形勢는다시惡化하야警官隊와의衝突이頻頻하게일어나서 이미一名의死亡者와數名의負傷者를내엇다

英國經濟使一行
奉天視察北行

【奉天四日發】英國經濟特使「룩손」氏一行十一名은今朝六時北平으로부터來奉하야奉天四日을것치고午後三時半發列車로長春哈爾賓方面에向하얏다

英佛兩國間
金融協同問題
財政專門家의意見

【巴里四日發】英佛兩國의金融協調의目的으로외目下兩國의財政專門家間에行하고잇는交涉에關하야『日』紙는『영』賠償案등갓가운將來에잇서서成績되는것이明白함으로도 外國家擁護責爲하야佛國은自進하야英國과의共同政策에參加한것이라고「루나판」氏는말하되『할사유이』講和條約改訂의要求를廢棄할것을條件으로서佛國은英國과財政的援助를與할準備를하고잇다

奚晉元帥葬儀
六日執行

【巴里三日發】「奚晉」元帥의葬儀는六日執行할터가되엿다

世界軍縮會議
三月一日에
開會할意嚮

【國府三日發】確實한方面에서聞知한바에依하면國際聯盟理事會는一九三二年二月一日에世界軍縮會議를開會할意嚮이라고

及【엘리암·마라렌】大尉는食糧品二百封度를有用貴物로하야積載하고單葉飛行

新年劈頭의
飛行消息
『손손』『싸루스』
두女傑의壯擧

【伯林三日發】世界訪問飛行의途에올은英婦人飛行家『아미·손손』孃은三日午後五時三十五分當地郊外『텀페르호프』飛行場에安着하얏다 四日莫斯科에向하야出發을豫定이라

【손손孃伯林着】

大陸橫斷飛行

【桑港三日發】昭和二十二日『오레곤』州『커포ー드』에서着陸할時倒立되야『루코르』號와及翼端을破壞한『엘르ー손』夫人의『帝鳥』號는修理가全部終了되야三日試驗의成績도良好하고 夫人의負傷도全治되얏슴으로再히當地에飛來하야北米大陸橫斷飛行을壯擧에오르기로되얏다

『막』大尉의飛行

【紐育三日發】『싸ー뮤ー따』島『리손』港에서太平洋橫斷定期飛行의準備를 [illegible] 하고잇는『막』大尉夫人 [illegible]

諸問題討議
聯邦構成의
終幕이不遠케된
英印圓卓會議

【倫敦三日發】印度圓卓會議는二日의議事에依하야드되어閉會가머지안흔것이明白히되얏다 即大法官『싼키ー』卿은二日의聯邦構成委員會에잇서서細目의議事하는때時間의消費를할것이아니라하고이때에細目의問題는專門家에게맛겨서大綱으로審議를進捗하지안흐면안된다하야來週即十三日以後繼續하야本會議를閉會할것을決定함과同時에그의報告를決定할터이라고이다

倫敦三日發 [illegible] 印度의團체안는程度의것을英國이주는것도無益한일이거니와또英國의到底히承認키어려운程度의것을印度가要求함도無益하다고하야自己自身으로 [illegible]

延時間問題
和解會議決裂
坑夫側態度强硬으로

【倫敦三日發】延時間問題에對하야聯合和解委員會斡旋下에坑夫及坑主의代表者等은會議를開하고交涉中이든바會議는午後드되어決裂되얏다 坑夫側에서는斷乎하게坑主側의延時間案을拒絕하얏다

安南人의
運動과밋그將來
弱少民族運動의展望
【六】 李加星

安南人의反佛運動

安南은一八六二年佛安西貢條約(或은柴棍條約)一八七五年佛安通商條約一八八三年佛安順化條約等을거처 完全히佛國의屬領이되엇다 이에서安南人은 東京地方에有名한劉永福을總師로한 黑旗軍과爭鬪를일으키고 安南 交趾各國에反佛運動을일으켜 [illegible] 그러고一九一七年에는黎玉珩을中心으로한泰阮用義(?)事件이일어나고 一九二三年에는 [illegible] 一九二四年南定紗廠과 夏烈公司의勞働者約五千名의 大罷業運動과 括林各處의農民暴動事件이잇섯고 一九二五年西貢兵工廠暴動等이일어나 비록佛官憲의無慈悲한鎭壓에 곳無事하게되엿다할지라도 安南人의政治的不安은依然 [illegible]

여엿다 一九二六年末로 安南人의運動은組織的으로되어가『安南民族×黨』(佛官憲側調査에依하면『越南國民黨』이라한다)을비롯하야 安南××黨 安南靑年××黨 安南共產黨(國際共產黨에加盟치안음)等이組織되여 漸次로反佛運動의 陣容을整備하게되엿다

一九三〇年大叛亂

佛國의 植民政策이그苛酷한것으로서 일홈이나게된것은 一、安南에對한征服主義的政治 二、『마다카스칼』士人에對한態度 三、『모록코』征服 四、『시리아』征服 等이며 安南에對한 佛國의植民政策은 自他가公認하는非人道的 惡政(이제 [illegible])이다 特히 [illegible] 三月頃本號政治的 [illegible]

佛國民族運動『革黨』으로서約五十年間 安南人은 여러번 그政治을 反對하여왓스되 海岸과國境防衛가 嚴重하여든까닭에 [illegible]

安南人의 부르지즘은 각가운中國에까지도 잘들리지안햇섯다 그러나 一九三〇年의新春을마지하게되여이분一 오래人心안不安의 雲이가드되여 暴動을 일으키게되엿다 南에서는드듸여 大叛亂이 일어나 世界의視聽을集注하게되엿슴니 當時佛人의唐慌하엿든것은 以下電文을보아足히알수잇다

『海防發』駐屯하고잇든安南兵二聯隊는 二月十日朝突然佛人士官五名을 暗殺하고 各地에潛伏中이든 獨立黨員과連絡하야 武裝兵을 先頭로하고一大 示威運動을 行하라고 [illegible] 突然佛軍의 [illegible]

바게되엿슴으로 安南兵은 못어에서繼續하엿스나 佛兵의無慘한砲擊으로依하야 死傷者二百餘人에達하엿다 延北兵營에잇는安南兵도 突然叛亂을이르켜佛兵과 猛烈한交戰을試하엿스며 海防의砲臺가安南兵에게占領되엿슴에는자못危險한形勢이엇스며安南兵은거의全國的으로動搖될 氣色이보임으로 佛兵은 不眠不休도警戒를힘쓰는同時에 海防防衛에全力을하고 [illegible] 佛人의生命을保護하라고 [illegible] 國民協會의 活動이엿나니同協會는 表面은文化團體이나 今回大暴動을 劃策하고多數武器와 彈藥을密輸하엿다

二月十九日 佛兵臨死者葬式에 [illegible] 突然爆彈의狙擊을當하엿스며 (佛蘭兵三人은 重傷) 河內總督府의警察長은 [illegible] 突然現場에서 即死하엿다 今回反抗運動에 佛兵의 死者는約三十名이오 安南兵은 五六十名計數字가 無하나 大體三四百名이 被殺된것으로 推定된다 安南에서 [illegible] 安南兵 十三名은 死刑되엿고 安南民族領袖인 [illegible] 阮氏는 河內에서 銃殺되엿다

解消論과
解消運動批判 (一)
東京 金東秀

序言

最近에新幹會釜山支會를비롯하야 新幹會解消의 [illegible]

[illegible]

社會主義는完成
資本主義는沒落
『歷史的意義를가진一九三一年』
◇……露西亞紙의新春豪語

【莫斯科三日發】 一日蘇聯의 [illegible]

主義經濟建設五個年計劃의第三年에드러가는바이다 同時에또한本年은蘇聯에잇서서의資本主義의 [illegible]

最大危機 에投入하려하고잇다 이두가지의事實은 一九三一年의 初頭에臨하야 [illegible]

緬甸中國人間
亂鬪를開始
警官隊出動에
死傷者多大數

【蘭貢(새두마)四日發】四日當地西部의『라따르』에서緬甸人과中國人이亂鬪를하얏는바드듸어重大한暴動化할염려가잇서警官隊는三個小隊를出動케하야鎭壓하엿스나 死者二名負傷者二十五名을내엇다

十日頃
首相退院
五十餘日에亘한入院

【東京電】昭和六年의新春을濱口首相도見鎭置한病院에서보낸濱口首相의新春은田南兩氏의努力에依하야順調하게全快되야가는바드듸어來十日이나十一日頃五十餘日에亘하야回想깁흔대大病院을退院케되엿다 退院後의靜養에對하야서는아직何等決定치못하얏스나萬事는主治醫의指揮를가다리고잇게되엿는바患者分도약속대로溫泉地에의隨情圖의意에는眞鍋、治醫도同意하고잇다

第五十九議會展望
論戰을豫想하는
本年度豫算

旣定計劃의節約에 對하야는 殿[illegible]大藏省에서「一億五千萬圓」의節約을各省에對하야 要求하엿스나 陸海軍省에의强硬한反對로 豫定하든節約을行치不能

하야畢竟 此亦一億二千七百餘萬圓에減額케되엿는데 이것은 보는데따라서는 物價下落에伴하는當然한節約、라고할수잇는것이다 그러나現 閣成立以來節히二個年도차지못하는동안에 四回에亘하야 內億三百餘萬圓에達하는節約을行한것으로 節約額이過少하다는 非難은當치안흘것이다 또六年度節約一億二千七百餘萬圓中 六千二百餘萬圓이節約額으로되얏는데 更히其內譯을左에示하면

六年度의節約內譯 (單位千圓)

省別	節減	繰延	計
外務	一、〇六七		一、〇六七
內務	八、五七七	三、六一一	一二、一八八
大藏	四、〇四一	二、四八二	六、五二三
陸軍	八、八〇九	一八、四一四	二七、二二三
海軍	一四、九〇九	三〇、〇三一	四四、九四〇
司法	二、六一七	二、〇六	二、八二三
文部	三、五七三	二、三〇五	五、八七八
農林	四、九四〇	一、四〇四	六、三四四
商工	六七五	二六	七〇一
遞信	一、六三八	二三	一、九六一
拓務	一一二		一一二
計	六二、九六二	六四、四〇五	一二七、三六八

◇

倫敦條約에基한豫算剩餘金의使途를如何히決定할가?의問題는 六年度豫算編成上의一難問題로되엿든바 [illegible] 政府當局으로서는軍縮剩餘金은當然히軍縮에서보탐할 [illegible]

八面峯

○

與黨側에서는、萬若野黨側이現政府不信任案을提出할時는中野山道의府(?)悍(?)한士로써이에應酬하 라고

○

그러나、意識的飛躍(?)亂에는三寸長舌이랴、그의마나 窮助할는지가疑問

○

더군나나相對는政友會니만콤新春早(?)北谷座에對한民衆의興味는漸次로昂騰

○

新春消息이라도반흔中 鐘屋、맥두스夫人의飛行辨活劇은그中에도傑作이다

○

昨年에未蕃한世界的、에로고의이今年에는 空中에서『그랍다이 막쓰』에達할듯하다

人事消息

▲趙氏(男爵)一日玉川河一番地自宅에서別世
▲趙東植氏 三日於通義洞一三一番地自宅逝去
▲金思溥氏二日中旅洞自宅에서分娩

野黨陣容決定
首相代理問題로는
鳩山島田兩氏猛擊

【東京電】政友會는도박귀엇슴으로六日最初의幹部會를開하고對議會策의具體的協議를할것으로되엇는바 攻擊作戰도大要內定되엿슴으로今後의幹部會에서正式으로決定하기로되엿는대特히首相

代理問題를裏面으로본다고하엿는대鳩山島田兩氏가質問하고不信任案提出을期하야外에도其他로政府에대하야 質問을與한다거퍼라고하는대 豫算案審議에는大藏省 [illegible]

白色美顔水
백색미안수

◁당신을참으로곱게하는

백색미안수도한화장의아름다움은다만화려거나고움에만그치지안코말할수업시청신하며섬바탕이본래그린거가티화고도어엽브게보입니다

◇

백색미안수의화장은참으로히들지안코주고와시간이오래걸리지안습니다급하게하드라도훌듀히곱게화장이됩니다

◇

또화장솜서가서루르신분도거칠거나기름이써어서백분이잘아니오고시는분도백색미안수면훌륭히고웁게오릅니다

◇

백색미안수는도곡약학박사의화장품연구소의독특한연구로써완성된화장품으로순수하야무연임으로여분의념려가큰것은조금도업습니다

멀리외국에까지
소문이놉흔물분

美顔白粉本舖 東京 大阪 桃谷順天館

强制執行四十餘戶 金浦農民의惨境

━삼십여호가강제집행당하고나서 또다시십여호가일시에집행당해━ 又復十餘戶에差押

【金浦】 근래 소작쳐도의 열며결함인 소위사음(舍音)쳐도로인하야 지방농민들에게 잇차는여러가지 폐해가 적지안홈뿐아니라 그중에는 사음이라는권리를리용하야 몽매한 소작세민들을 고달푸게하는일이 적지안흔터인데 이번김포(金浦) 지방에도이와가튼 사실이 뒤를이어발생하고잇는바 동군하성면 하사리(霞城面霞沙里)부근농민들이 사음의 관계로인하야과왕지몹한 비료대금문제로 관계농민 삼십여호가 억울하게도 일시에강제집행(强制執行)을당하고반금사선(死線)에서 헤매이고 잇스며 계속하여 동군월곳면유정리(月串面發井里)일부농민십여호가 역시 사음의관계로인하야 세간업시 일시에억울하게도 강제집행을 당하야 살림세간은모두경매를 당하고남부녀대(男負女戴)로 류리(流離)하느냐그대로주으려죽느냐하는눈물겨운참담한현실이잇다

舍音에게속은 二百圓負債

간교한사음에게속어서 不幸의原因은如此

사건의내용을 탐문한바에 의하면 권리농민들은 거금사오년젼부터 경성(京城)사는 대지주윤평숙(尹平淑)씨의토지를소작하야오든중그사음(舍音)인리우영(李禹永)이는소화이년겨울에 권리소작인들에게 대하야 자주윤평숙씨에게 비료대금(肥料代金)을청구할터이라 소작인들의도장을 찍어주엇든바 그후리우영은 지주윤씨에게 권리중서는주지안코 소작인의 비료자금이라는명목으로 현금이백 여원을갓다가 소작인들은 아지도못하게권부 소비하엿든바 써맛즐 소화삼년에는 대한재로 인하야 비료를 사용치못하게되고 겸하야그해에는 추수도 업섯슴으로 지주측에서도 비료대금을 청구도하지안핫든데 소화사년 가을 추수시에 지주윤씨로 부터권리 비료대금을 소작인에게 징수하려는때에 필경발각되자 결국 우영은 사음까지 떠러지고그후 어대로인지종적을감추엇든것이다

二審까지敗訴 小作人束手無策

마츰내강제차압을당해 生死岐路에서彷徨

그런데 작년오월경에 일으러돌연경성부암근정(岩根町)산다는 리화사(李華師)로부터 권리농민십여호에 대하야 원금이백원에대한 련대채무(連帶債務)를 리행하라는영리업는지불명령을발송하얏슴으로 의외에 이와가튼 사실을당한권리 소작세민들은 즉시인지청(異議申込)을 하고 수삼회의 구두변론까지 잇섯든바 원고리화사의 주장은소화삼년십일월경에 리우영의 요구에의하야권리농민십여명이련서날인(連署捺印)한 련대채무로 리우영에게 현금이백원을 빌려준것이라고하나 사실인즉소화이년겨울에 당시 윤씨의 사음이든리우영의권유로 윤지주에게 보낸다는 비료청구서에는 도장을찍은 사실이 잇스나그와가튼련대 채용증서에는 도장씩은일이전연업다고 모든 사실을부인하야오홋차의 구두 변론까지 계속되다가 결국 피고들의증거가미약하다는 리유로 필경일심에서는소작인측이 패소를 한후다시경성복심법원에공소까지하얏든바복심에서도역시패소를하얏슴으로이와가티확정판결이 지바트리회사는필경수일전에권리농민십여명에게 강제집행 한것이라는바 그와가튼 커지를당한권리농민들은 하금 생사의기로에서아우성치고잇는동시에부근일대에는자못원성이창천하다고한다

益山에檄文 六名을檢擧

혐의자와증거인다수검거 裡里警察血眼活動

【益山】 지난십이월삼십일밤에 전북익산군 룡안면 중신리(全北益山郡龍安面中新里)를중심으로 근방각처에『일천구백삼십년』의위력(威力)이란 격문(檄文)을 불온한격문을 산포한자가잇서 소관주재소에서는 대대적으로 활동하여중신리박석규(朴錫奎)씨의 가택을조사하고여러가지로 취조를하엿스나 아모단서도엇지못하고 황황망조하다 엇절수업시 본서인리리 경찰서로 보고하얏든바 이급보를바든 리리서(裡里署)에서는즉시형사대(刑事隊)를파송하여 동면석동리 전봉철(全鳳喆)씨가택을수색하고중신리서중식(徐重植)씨 림규동(林奎東)씨 권희근(全熙根)씨동리(中新里)림유희(林有熙)박석규(朴錫奎)를 혐의자도검거하는일방 중신리(中新里)야학원을수색하여다수한 잡지장부를압수한외 리영우(李永宇)를증거인으로검거하야 지난삼일에리리서로 압송하엿다는바 일반은 사건의진전을주목중이라한다

진흙뿌리는 惡德自働車

嚴重히取締

류례업는 따뜻한긔후(氣候)와 고로지못한 권리관계로 대경성은 진흙에바다로변하야남촌(南村)일대와 종로통(鍾路通)일부의아스팔드는길을제외하고는 굴자그대로『펄』(泥濘)판이 되여 도모지통행을 할수업는이때에 자동차가 니ㅅ물(泥水)을 날지안코 속도정귀이상의 속력(速力)을내어 길가는 사람에게 진흙물을입히는등 험한일이적지아니함으로 시내 룡산경찰서(龍山署) 보안계에서는이악덕자동차(惡德自働車)를취체하기위하야 작일부터 요처에경관을배치하고 속력기타를 엄중히조사하는중인데 위반자는속속 적발하는중이라한다

職工六百名盟罷 警官隊와遂衝突

◇十二條要求提出코서 咸興片倉製絲에서

【咸興支局電報】 함흥 편창제사공장(咸興片倉製絲工場) 직공륙백여명은 사일오전날곱시부터 돌연 임은인상(賃銀引上)등 열두가지 요구조건을 회사당국에 제출하고일시에 동맹파업을 단행하엿는데 이급보를들은 함흥경찰서(咸興署)에서는 즉시 현장을 경계키위하야 경관대를 파견하엿든바 파견한경관대와 파업단사이에는 마츰내충돌이 이러나 다수한검속자를보게되엇는데형세는자못험악하다고한다

一部만就業코 罷業을斷行

요구조건은제출안해 大昌織物爭議續報

시내행동(杏洞)첫번지에잇는대창직물회사공장(大昌織物會社 一工場)의 직공오명이 임금인하(賃金引下)를 반대하고지난삼일부터 돌연동맹태업(同盟怠業)을단행하고형세자못불온하다함은기보하엿거니와 그후의 경과를들으면작사일은 제일 일요일으로정긔휴업이엇고 금오일은 당연취업일(就業日)이나 이백 오인중에서 녀직공(女職工) 일백삼십륙인이 종업하고 잇는중에서 여직공사십륙인과 남작공십여명이 출근취업(出勤就業)하고그외남녀 일백사십명은 동맹파업(同盟罷業)을 단행 하엿다는데 아직직공측에서 결속하야 여하한 요구조건(要求條件)을 제출할것는 업다하며 동회사는 조선에서 조선견직회사(朝鮮絹織會社)와함께 조선의 견직물(絹織物)을 직조(織組)하는유일한공장으로 종건의 임금제도(賃金制度)는 직조(織組)하는 분량에따라서 급여하야 매월일인평균 십삼원으로부터 최고이십원에 평균 십사오원이든것을 이번에 최하 오부로부터 최고이할오부까지 임금을감하하겟다 발표함에대하야 직공들은 그들의가족과 도저히생활을 보장하야갈수업다는 것으로그가려 동맹파업을하게된것이라한다

舊正압두고 私差押이盛行

차인을시켜함부로가저가 龍川債權者等跋扈

【龍岩浦】 미가커락(米價低落)에따러서불경긔는 더욱심각화되어가는데 이지음 구년말이 박두하야 갈사록룡천(龍川)지방에는 채권자들의행동이 더가혹하야 진다한다 필곡감음식갑약갑(藥價)기타여러가지의 상감을 현금으로밧기는 매우어렵다하야 채권자들은 차인을시켜서 쌀밧, 콩밧, 삿밧(蘆田)등을 닥치는대로 마바다드린다 하며 심한사람은 채무자의 승락도업시강제로 해여가는 사람도잇스나 빗진농민의 채무자들은 엇지할수업시 사집행(私執行)을 맛고도 하소연할곳이 업다하며 관청에서도 이만한일을 모루지아니할터이나 수수방관의 태도를취할뿐이라고 일반의 원성은자못놉다 한다

入水自殺圖謀

【鳥致院】 지난삼일오후네시반경에 충남조치원본정(忠南鳥致院本町)에잇는 못가운데에 늙수그레한 남자한사람이 물로들어가 죽으려하다가 다시 살려달라고 소리를지르며 도로 뭍으로 나왓다는데 그사실을자세히 조사한바에 의하면그로인은 강원도 방순진(方淳鎭)으로 지금으로부터이십사년전에 자기안해를 황천으로보내고 집을 떠나조치원에와서 정거장인부로 이십이년간을잇다가 실병이 잇서서정거장인부노릇도못하고 약 이년간을 유리걸식을 하다가 엄동설한에의복도업고 겸하야 밥조차어더먹을수업슴을 비관하야 그와가티못에빠저죽으려하든것이라한다

赤黑主義者衝突 雙方流血의格鬪

◇함남단천군두우리에서 二名危篤、重傷多數

【端川】 함남단천군에서는 적색과흑색의주의자들의 충돌이빈발하여 오든바 금년새해를 마지하는 첫날인 지난일일에는 리중면두우리(利中面斗牛里)에서 량파주의자가충돌되여 쌍방에중상자를 만히내여 목하생명이 위독한사람도잇다는데 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리중면두우리에잇는 단천신흥청년련맹원 흑색청년이든 모씨가사상변동으로 약일개월전에 단천농민조합에 가입하엿든바 흑색청년들은 그들을배신이라 고책하고 농민조합에서 탈퇴하라고 한일이잇섯다는데 그소식을들은 그곳청년들이 지난일일밤에 두우리에 잇는 흑색청년 김룡삼(金龍三)씨를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중로에서약삼십여명의흑색청년과 마춤내서로격투가되어그중김승모(金昇模)씨는 좌편흉부를찔리어 폐(肺)까지에 깁히삼촌 기리이촌의중상을입고 목하 단천읍삼성의원에 입원치료중이나 생명이매우위독하고리학삼(李學三)씨 김화룡(金化龍)량인은각각우편견부(肩部)에 기리이촌 깁히사촌의중상을 당하여 역시입원치료중인데 생명에는 별관계가업다하며 그외에도 두부(頭部)와 손(手)등에중경상을당한자가삽사명에달하고 흑색청년허모(許某)도흉부에중상을당하야 생명이 위독으로 방금단천읍 영생의원에입원치료중이라한다

奉天憑庸學生 三日新義州出發

【新義州】 봉천에잇는 동북대학(東北大學)에다니는조선학생 다섯명이조선각지농촌의 실황(實況)을 조사하고 아울러농촌계몽을 연구하고저 봉천으로부터 남쪽까지 려행하고저 도보로 룡천군(龍川郡)으로떠나갓다는 도보려행단(徒步旅行團)은 대학에와 중학부에 단이는학생들로 ▲片炳五(二三)▲李俊浩(二〇)▲白洪基(二〇)▲李賢燾(一八)▲徐廷冠(二〇) 제군으로 그로정은 삼일룡천을 거쳐서 각촌을시찰하고 평남을 거쳐황해(黃海) 경긔(京畿) 충남북(忠南北)전남북(全南北)을시찰하고다시동해안을 고다시동해안을 개월동안 오는삼월 개학까지 권소천을답사하고 봉천에 도라갈 터이라한다

拾圓을못갚어 結項自殺

전북금산에서

전북금산군제원면제원리(全北錦山郡濟原面濟原里)에서는 신년벽두에 목을매고 무참히 죽은 사실이잇스니 이제그내용을 듯건대 리원리태생으로 조업(祖業)을 밧지못하고 빈한한 흑운으로 가리운 사실이잇는데 농사도짓고 그남어지 여가에는 근근히 상대정(酒)실도하야 여생을이어나든 허모(許某)는 어느사업단체(事業團體)로 부터 원금삼십원의부채를지고 잇든것이 날이지날수록 늘어서 올해에와서는 십원이라는 돈이된 바 액수가적을뻐에도 감당을못하든터에 더욱 십원이라는액수가되고보니 갑흘대야 속수무채인관에 채귀의 졸늠은성화갓고 압흘로는살길은막연하야 그만당상의 백발의 어버이와 슬하에어린처자를 꿈아래던지고서 다시 도라오지못할 그가튼 참혹한죽음의길을밟고야말앗다 한다

메익업에奔忙 『地下村』의練習

◇배반하는자는벌하여라 ◇영화계에투신한신전사 一回作準備의靑服키노

精進의新春 (五)

적선동(積善洞) 권차 정류장에서남쪽을 켜다보면건너편『세락』의이층이북으로 향하야 느러서잇다 귀자는 그중에서『靑服키노』라고손작은문패가부튼방을 차자들고안으로드러갓다

×

실내를둘러보니 사면의 회벽에는『아메리카』와독일(獨逸)의유명한남녀배우들의 사진과 일즉이세계의『팬』들을 열광케한 명화(名畫)의『스틸』이수업시붓허잇다 체일요렴(妖艶)의『메티、아ー만』──영원의 어린계집애『난시、케롤』──『허리웃드』의 권희자 『빈독릿스』── 히랍져의어골의입자『윤・바리모어』──마치세계의영화인이 한곳에모혀부드러운목소리로『파우더』와 『빠니』를 흡연얼굴을칠하여잇자에게속삭이는것 가터서 이 흔방에 대하야귀자로 하여곰 더욱뜻한친분을늣기게하엿다

×

이옥고남쪽벽에 기대부른 층층대를 쿵쿵발자국소리가 구르며나려온다 그는감독(監督)강호(姜湖)씨엿다 얼는보아서 라운규(羅雲奎)군비슷한 얼굴과 인상을 가진그에게 인도되여귀자는 이층의 련습실(練習室)로올러갓다 삼조(三疊)가 겨우되는 좁은방안에서 사오명의여배우와 칠팔인이넘는 남배우가각각거울압해 무러안거서 련습시간을 압해두고 분주하게『메익업』이 필하자 방안에죽돌려잇것다 이옥고 강호(姜湖)씨의지도로 표정(表情)과동작(動作)의련습이시작되엇다 그리하야그들은 이방안에서 하로에도 몃머차레식 아름다운 새벽에향하야 동경(憧憬)의시선을 보내고 포학(暴虐)에대하야 얼굴을붉히고 눈을부릅뜨며 허위에찬세상에 향하야 저주(咀呪)의눈을흘긴다 또한하로에 몃차례식 심장의피를끌케하며 『배반하는자 벌하여라』

×

하고 오는칠일부터 실제촬영(撮影)에착수할『씨나리오』『지하촌(地下村)』의『클라이막쓰』를되푸리하는것이다

×

청복(靑服)『키노』의 배우들은주연(主演)강춘희(姜春熙)리정애(李晶愛)림화(林華)리학래(李鶴來) 제씨들을위시하야거의『아마추어』로부터신흥영화에대한 열렬한 동경과 진집한리해를가지고 영화계에 투신한 전사(戰士)들이다 따라서그들은뭇이업는 열정을가지고오직정적(靜寂)이지배하고잇는조선영화계에새로운 개척의 광이를던지고 잇는것이다 우리는안다 일즉이『스나야야●쎡루ー자』는 『靑服劇場』가 세계연극사상에 엇더케 새로운예술을창조하엿는가를──우리는청복(靑服)『키노』에 향하야 일즉이 『스나야야●쎡루ー자』의 연극에서한일을 조선영화계에 남김으로써 천구백삼십일년의 영화계로하여곰 그의 노력으로빗나게하기를 축망하면서 그커일회작품『지하촌(地下村)』의봉절(封切)을기다리려고한다

◇사진은분빈한배우들

小春氣溫의變調 六日부터嚴寒回復

만주의긔압이조선안보다약하여 남쪽지방더운긔운이흘러왓다 ◇한차례남은小寒치위

최근조선안의 긔후는 봄 나파가티 뜨뜻하야 어름이보다풀임으로 경성시내는 진흙바다를일우엇는데 긔온(氣溫)을 조사하여보면 작년십이월금음까지 령하 십이도삼분이나되든것이차츰올나가기시작하야 지난사일에는 령도를지나 삼도까지 올나갓섯다 소한절후(小寒節候)에 일긔가 이와가티 뜨뜻한일은 실로희한한일인데 경성측후소의 말을들어보면 매년이맘쩨에는 조선반도의 긔압(氣壓)이 낫(低)고 만주방면의 긔압이 놉하지어찬 바람이 북으로부터 조선안에더리치는것이 보통인데 일월일일이래 만주의긔압은 조선보다도 더 약하야 긔압이 어나집으로조선이남의더운 긔운이 북으로 흘너드리게 된 형편임으로 조선안의 긔후는 대체로 뜨뜻하게된것인데 이것은 일시적의 변조(變調)이라고 한다 그러나 륙일부터는 한긔가회복됨을따라 일긔는 다시치위지리라고한다

小寒

금륙일은소한! 일년중에 제일치운 결후라하지만 금년은괴상(怪狀)의 변조(變調)로 인하야 몹시어 뜨뜻하얏다 그러나태양이 남회귀선(南回歸線)극단에 날으렀든동지(冬至)로부터 보름동안을 지난소한은 실로 일년중에 제일치운때인데 이날을 지나보름만이면 대한(大寒)이오 태양은 남회귀선으로부터 점점갓가히 오는 때임으로 더치위질렴려는 거의업다하야도조흘것이다 일년치위도이로부터 흑독한대목은 다넘긴세음이오 이제로부터 한달만에도 라오는 립춘(立春)으로써 일년치위는 완전히웃음을맛고 농부들은 시비(施肥)준비를 시작하게 될것이다 명일소한절후는 오후세시오십육분 그리고 오전날곱시사십륙분에 해가떠서 오후 다섯시삼십분에 해가지는데 낫(晝)은 아홉시사십분동안으로 동지보다는벌서삼분동안이 길어졋다

山梨大將公判 明六日에續開

동경지방재판소에서 判決如何를注目

【東京特信】 작년구월이십륙일부터 동경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 제일호 형사배심법정에서 제삼회공판을진행중인 전조선총독(前朝鮮總督) 산리반조(山梨半造)등 여덟사람에대한심리는 지난십이월동안을두고 속히도 종결을 짓지못하고 마츰내공판은 월년(越年)을 식히어 명륙일부터 다시속개하고 변론을계속할모양인데 그에대한 판결(判決)은 금년(一年半)은 피연엇지나될것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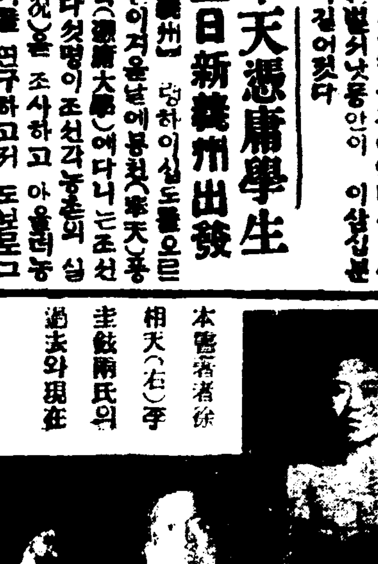
遊覽飛行中止

시외여의도(汝矣島)에잇는일본항공회사(日本航空會社)에서는 일반으로 항공사상(航空思想)을 보급식히기위하야 오는십팔일(제삼일요)부터 이틀동안 경성의상공에 비행기를날니어 뜻잇는부인들에게 탈니리라 하도록할계획이 엿든것이나 여러가지사정으로인하야중지하엿스며 동경(東京) 복강(福岡)등지방을향하야 날려나가든 정긔항공로(定期航空路)는그대로운항한다는바 지난삼일 오전열한시 여의도를 떠난려객기에는 네살나는 어린내를비롯하야 만원의 성황을일우엇다 한다

편셋트

▲신년부터 강제차압 동맹파업 비관자살……듯기만 해도징글징글 ▲차압안코쟁의업고자살안코는못사는세상인가? ▲눈이오고비가쏙리고 날이풀리드니 쉬울길거리가 논두렁과가티 질퍽질퍽 ▲경성부에서는 남쪽사가의 길만정성으로하지말고 종로북쪽의 진흙밧을 하루밧비 고치노하야할일!……새해부터한가지희망이다 ▲이런써에 흙밧기도 달지안코 켜가켜로다고 횡행하는 자동차 ▲행인의옷에마음대로진흙을뿌리니 각서경찰은 단속할일이야

現代体力增進法



本書著者徐相天(右)李圭鉉兩氏의過去와現在

보라!! 隆隆한이筋肉과 튼튼한 骨格을! 그러나이것은先天的이안이오 後天的産物이라면얼마나놀날일인가

「現代體力增進法」으로어

◇가장合理的인體格矯正法을總稱하는것인바이것을紹介하기爲하야斯界權威四氏는積年心血을傾注한結果비로소이冊을엮게되엿다

◇積極的體力增進法(現代借力法)
◇運動競技選手의基礎的鍛鍊法
◇男女老幼의日課的保健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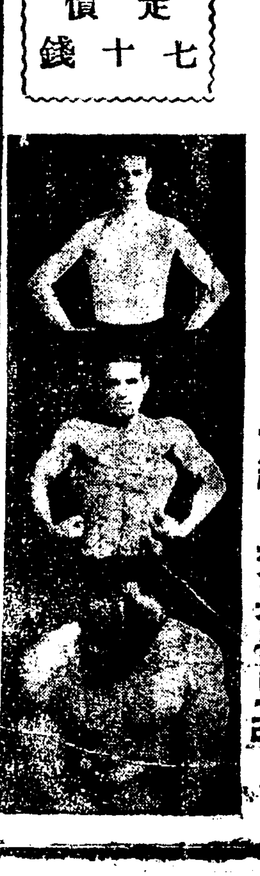
【本書內容】 ●本書는現代世界各國에서有名한산도우運動法에서精髓數十餘種을抽出하야一一히圖解附說明을하엿는데▲僅少한時間에効果絶大▲器具簡單▲特定場所와設備無用▲單獨으로可能하고▲年齡性別을區別치안는우리의生活條件에適合한保健法 ●積極的體力增進法四十餘種─一名現代借力法─은强壯한筋骨鍛鍊과體力增進의外合理的體格矯正法을說明하고 ●肝要適切한體育生理와保健衛生을十分無漏紹介하엿다 ◎그럼으로本書는健康破産에瀕한男女老幼와隆隆한筋肉과體軀를羨望하는이에게確信과자랑으로斷然이提供하는同時에學校體育界指導者에게는各種體操의綜合的集成인本書를唯一한參考書로推奬한다 ◎더욱著者徐相天李丙三李圭鉉李丙學四氏는體力增進法研究의最高權威로直接中央體育研究所를設立하고多年實驗研究한結果本體力增進法에依하야數百健兒와人士의體力을强化增進하엿다 卽本書는同研究所의基本的敎材이다 ◎時히世界强力家와朝鮮强力家의肖像畵및力藝寫眞數十枚를美麗한아ー트紙에版으로넣은것은一大偉觀이며世界와朝鮮의各種體力比較記錄과興味津津한强力家의武藝의逸話는本書의精華的裝飾이다 諸君!!!本書의積極的體力增進法에依하야不過六個月或은一年內에鍛鍊하야驚異的强力家가되는例가우리本書內寫眞에도證明할수잇스며中央研究所에서는얼마든지볼수잇다

『現代體力增進法』을!이冊은一九三一年부터의우리들民族保健運法에方法的宣言이될것을밋는다

읽으라!!!

定價 七十錢

發行所 京城府花洞四二番地 世光社 振替京城一九二三二番
總販賣所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現代體力增進法의奇績的効果를보라!

賀正
北京料理 蓬萊閣
新年御宴會
鮮銀裏 高台 電話本局 八三 五一 九七番

釜山 橋倉外科醫院
釜山府西町一丁目二十三番地
入院隨意 電話一一八四番

新婚式貫物萬花堂
京城西大門町一丁目八四
金埈元

晉州藥令市 廣告
開市 陰十一月二十日
閉市 陰十二月末日
藥材引換이相當하면迅速酬應하겟사고客商便利를爲하야諸般事를特別注意함
主催 晉州藥令市振興會
後援 朝鮮日報晉州支局

美味安價로輕便한食事는
和食 花月食堂
京城府黃金町二丁目角 日本生命ビル內
電話本局二[illegible]五七〇番

外科 肛門病科
醫學博士 朴昌薰
入院 各室 等 獨房

頭痛에는ノーシン

現代는法律時代!
書籍은實用本位!
辯護士金炳魯先生序 文光社編輯部五先生編
實用法律問答集
綠色表紙美裝一冊 定價送料外 一圓八十錢
京城府鹿珠洞 (要先金)
文光社 振替京城九二九六番

農家의唯一한副業되는 蜜蜂의繁殖法(四)

蜂波

一, 過冬期間 은十月下旬부터翌年三月末까지 約五個月으로 算치아니치못할지니(地方을따러各異하나 京城附近을標準) 蜂群過多은低溫만堪耐한다거나 又는他昆虫等과가티多眠도하는것이아니오 恒常食料를消費하며 溫度도華氏四十五度以上이必要한것이다

그食料를消費함도 外界에活動하기爲함과 過多中에生命을維持하기爲함과는 大差가有하야 過多中消費는僅少하다 하겟지만은此間이長함으로 總量은莫大할뿐아니라 中間에補充하기는非常히困難한것은 蜂群의吸取力이缺한外닭이다

(二)過冬準備 를미리十月初부터着手할지니萬一時期가느지면 모든것이任意도되지아니하야 失敗를當하게되는것이다

(甲)蜂數整理 에注意할지니整理時期에는 每蜂群에約一萬首면足하엿지만은 過多中에는적어도二萬首오 만케되면四萬이라도可하니 其理由는一箱의蜂數도 만흘수록溫度가上昇하야 여러가지로好影響이잇스니 卽寒氣를耐키爲하야容費하는蜜을節約함과 箱內의蜜은過集의것이라도 無難이攝取할수잇는等(蜂數가少하면箱內溫度가低한故로 蜂의集團處는져우攝取하나 조곰隔離된것은其處로飛往할體力이업서餓死함으로 一見함에는純然한凍死갓다)이니 秋期繁殖에는 此를豫想하야過度한分蜂을行치말고 恒常蜂數整理에努力할것인데初霜을맛날째에는最終整理를行하야 三萬未滿의蜂群을合倂하여서라도(合倂方法도各種이 有하나便利한一二例를擧하면 王蜂誘入과가티糖烟을兩郡에倂施하여서一群의王蜂은除去하고 合倂하든지又는巢에蜂이附한채로蜜液을噴하야 合倂할도可하다) 所要의蜂數에達하도록하고 蜂이稀少한過集는 拔取할것이다

(乙)食料準備 를充分이할것이니蜂群의過多食料가豊富할수록 成績이良好하고蜜費는決코업는것이다

그程度는蜂群이充滿한巢에는完成한蜜도充滿하여야될것이다卽二萬의蜂群이라하면 入枚巢에半部以上 貯蜜이充滿하여야된다

그런데旣述함과가티初霜이始作될때에는食料를豊足하게準備코저할지라도一時에完了하기는困難한事情이잇스니 그것은蜂의卵이나 幼虫이殘餘하야貯蜜에障碍가되는外닭이다

그렁타고空巢나巢礎를與함은後日가더크게되는故로 아모조록蜂群이 蜜巢될만한 巢에다가貯蜜을充滿케하되 人工으로飼料을할지라도미리부터不絶이補給하야 蜂이化生한跡에는速히貯蜜로代하야 產卵圈이縮少하다가必竟에는 全部貯蜜이되게하여야한다

또萬一繼續의勞苦를 累코저하야產卵이 停止되고空巢가多하기를待하야 飼蜜을開始하면此時는벌서 時機가느저 糖液吸收의能力도減하엿고 設或吸收할지라도 蜂自身의過多食料에適合한만치加工할餘暇가업시그대로두엇다가 越冬時에攝取하면 蜂等은此로因하야 可恐할下痢病이流行되여其蜂群의全滅까지된다

(丙)保溫裝置 도無誤치못할것이니 假合此를施치아니한다할지라도 蜂群이充滿하고貯蜜이豊足하면 過多은할수잇지만은 保溫하여준것에比하여서는 食料消費도多하고여러가지弊端이層生疊出하는故로 溫帶地方에서는保溫이必要한것이다

×××

그方法으로여러가지가 만치만은 가장簡便하고實效잇는一法을記하면圖示함과가티蜂箱과間隔이約四五寸될만한外箱을作하되 單獨外箱이나又는 共同外箱의實效는近似한故로 比較的經濟되는 共同外箱을作하고 其間隔에는稻藁 鉅屑等으로塡充하고 出入口만은幅이一寸가량되게適하여두되 塡充物이流하지아니하도록 裝置할것이다

以上으로外時急에應할만한蜂群繁殖과 危險을免할過冬은될줄밋고펜을擱한다(完)

堆肥施用奬勵와 그製造方法(四)

趙寅燮

二, 堆積法

上述함과가티 堆肥는家畜의糞尿에汚穢된藁草나 또는山野路傍의 雜草刈取한것이그原料인바이것을新鮮한그대로施用하면그腐敗醱酵가되지안은것임으로作物에卽時吸取利用도못될뿐아니라그土壤속에서腐敗醱酵하는동안作物에害를끼치는同時에堆肥로서의眞價를나타내지도못하고따라여러가지로害가만습니다그렁으로 一段一定한場所에堆積하여두엇다가 完全히腐敗醱酵한後에 施用치안흐면안되는것입니다 그堆積에는三種類가잇는바

(一)屋內堆積法

이法은特히堆積物을 設置하야 堆肥를堆積하야 腐敗醱酵케하는方法입니다 이法은貴重한肥料成分 特히窒素가雨水等으로하야 流失되고또는發散될憂慮가적고 또堆肥舍가잇슴으로塵芥가튼것을 모아서쌋키도함으로 宅地의周圍가淸潔케되며 衛生上多大한利가잇슴니다 다음堆肥舍에對하야 말하려함니다

(아)位置 堆肥舍의位置는될수만잇스면 畜舍近方이조흔바그理는 畜舍에서厩肥쇼려내기가便利한外닭입니다 또理想的으로는 南쪽에樹木또는建物가튼掩避物이잇서서 太陽의直射또는空氣의 流通等을防止하는것이조흡니다 그理由는太陽이直射하거나 空氣의流通이甚하면 肥料成分의揮散이甚한外닭입니다

(야)床面(밋바닥) 床面은理想的으로는콩크리트로平滑또는 堅固하게할이조흐나쩝用上그러케 할수는업고粘土(진흙)가튼것으로 堅固하게平滑히 다지어서만들되그厚는約三四寸이면조코 中央을向하야兩面으로 約三寸가량의傾斜를만들어 床面中央部가조금깁게흘러지도록하는것이 조흡니다 그理由는堆積後의 水分供給의目的으로 汚水또는淸水가튼것을灌注한것卽堆肥液이 흘러나리며 그傾斜진곳으로몰려 한모퉁이에 設置한溜桶에流入하게하기爲함입니다

(어)周圍 堆積場의周圍는흙가튼것이나 거적가튼것으로담을만들어空氣의 甚한流通을막는것이조흡니다

(여)屋根 집웅은藁稈가튼것으로 엿을엮어서덥허두면그만입니다

(오)入口 出入口는北쪽에두는것이조코 그幅은堆肥運搬에便토록 適當히할것입니다

(요)面積 面積은堆積의分多한時외 三倍가조타고하나地面經濟上 牛馬一頭에對하야三坪卽長十三尺 幅九尺이면조슴니다 地面의餘裕가잇스면十八尺과十二尺이조습니다

(우)溜桶 肥堆液溜桶이肥床面傾斜인곳으로 흘러내리여모일곳인바 舍內一隅或은舍外便利한곳에 이桶을埋設하면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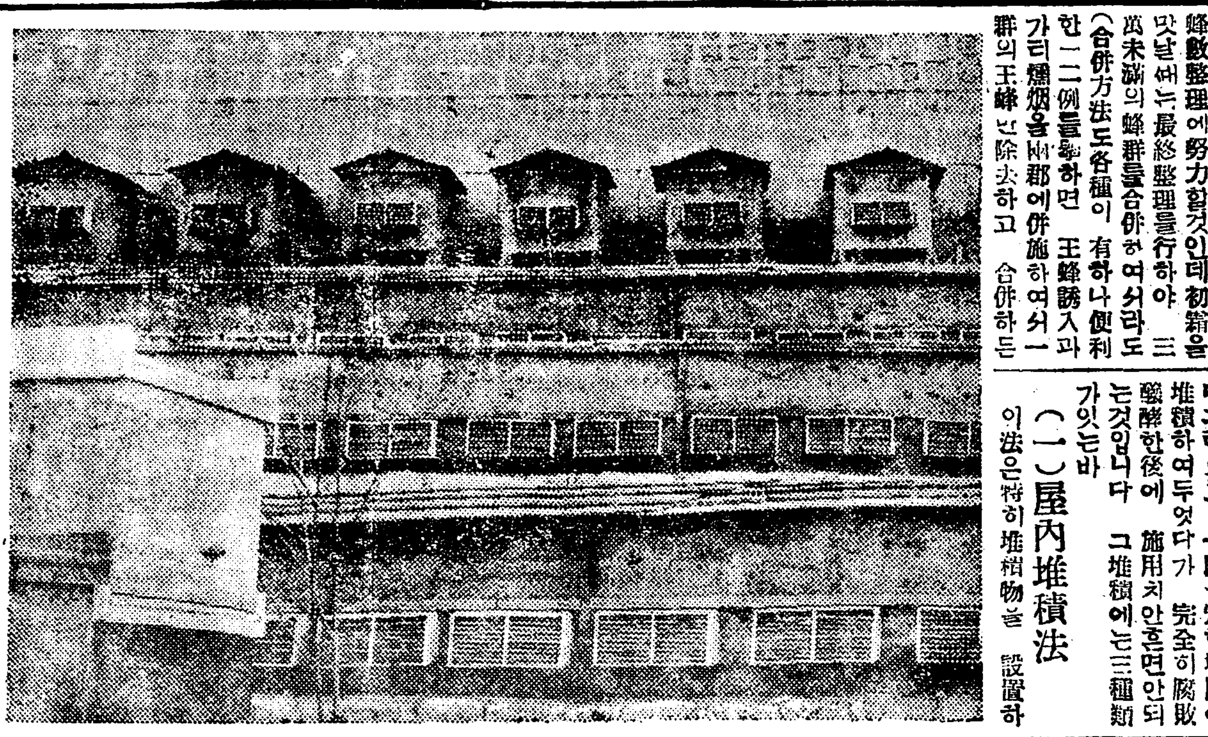
(유)堆積方法 堆積方法은먼저材料의粗大한것을 밋바헤쌋키시작하야 細小한材料를맨上部에堆積하도록하되 凸凹面이업시또는緻密히밟을것이외다 만약堆積진것이粗疎하든가 平均치못하면 良好한堆肥가되지못하며 腐敗醱酵가均一치못하게됩니다 何如튼堆積은均一히하고 또緻密히밟을것을이저서는안됩니다 그리고堆積物이乾燥치안토록 汚水나개수물또는井水가튼것을灌注하여야할것입니다

(二)屋外堆積法

現今朝鮮의常用堆積法은大槪가이法인바堆肥의質로는舍內堆積이良好하지만 堆肥舍를建造함에는 多大한費用을要하며또實際에잇서서도 舍內堆積이라도堆積中管理特히灌水가튼것이나 뒤재는것이든지不充分하든가하면 屋外堆積보다도그質의不良한것도잇슴니다 그럼으로반드시堆肥舍를建造하라는것이아니라 可及的잇는것이조습니다

屋外堆積物도 그位置는畜舍의近方 또는마당의一隅或은便所염가튼곳에設置하고 그面積은屋內와가트며 地下水의高低에따러달으지만 普通으로地面을地下二尺쯤掘下하고 地面우도芝土(잔듸)또는土石으로 多少斜面을두고쌋되 上部가一尺幅즘되게쌋습니다 그러면底部는三尺쯤자리를잡어야합니다 芝土가업는곳은할수업지만 可及的芝土로할것입니다 그理由는잔듸가着根이되면 每年修理할必要가업는外닭입니다 그리고床面을堅固히하다지고 平滑히골을것입니다 그리하야堆積物의總深은五尺이되게됩니다

다음堆積 할時는먼저粗大한材料부터 約一一二尺쯤쌋고그우에吸收力이强한粘土가튼것을一寸쯤씩코그우에또材料를一一二尺쯤쌋코 또그우에흙을착어서材料一尺 흙一寸쯤 이와가티격지격지堆積하야總高五尺쯤되면 그上部에는흙을좀둣덥게約三寸쯤덥습니다 그리고그우에는肥料分의損失이적도록하기爲하야 藁稈類로엮은영가튼것이나 筵席가튼것을덥허두면조습니다



農家에適切한 副業養鷄(三)

旺新養鷄園 全仁鎔

鷄卵處分에對하야는 京畿道畜産聯合會販賣所와京城養豚鷄組合에서 直接賣買或은斡旋을하는바 此等은보도가地方으로서온日字經過의 鷄卵임으로到底히地卵이라는 京城附近의養鷄場이나 또는이와連絡을取하는地方養鷄場의 新鮮卵보다는每個에五厘內外의差가잇다 그러하야市內公設市場사의雜貨商及牛肉商 또는野菜商等에都賣하는바 春節最低三錢으로 秋期最高五錢五厘로現行되는것이다 年中平均四錢으로보면確實하다 그리고大槪는 在來種보다 一錢의高價를維持하고잇다

나、落伍鷄二百首는 肉用으로每首七十五錢式에鷄商輩에게賣出한다

다、成鷄五百首一年間飼料

品名	數量	單價	金額	備考
米糠	二四〇石	一、六〇	三八四、〇〇	四時使用
麥糠	二四	一、四〇	三三、六〇	水氣時에多用
粟糠	二四	九〇	二一、六〇	四時
飴粕	二四	三、〇〇	七二、〇〇	同
大麥	二九	六、六〇	一九一、四〇	夏節專用
屑小麥	二九	五、五〇	一五九、五〇	四時
玉蜀	二〇	八、〇〇	一六〇、〇〇	同
糠粃	四七	三、〇〇	一四一、〇〇	同
高粱	二〇	八、〇〇	一六〇、〇〇	多節專用
大豆粕	一六	八、〇〇	一二八、〇〇	(熟湯에二時間쯤上浸入한後使用)
鹽麵	四〇	二、〇〇	八〇、〇〇	
合計	二九七石		一、一八五、五〇圓	

紅樓夢(三五)

涵雲譯 夕影畫

(椿齡畫薔痴及局外 三)

종잇다가 보차와 붕커는갓다 며옥이가 보옥이에게

『옵바도 나보다 심각한사람을 한번 격거보앗지? 어듸누가 다몰 나처럼 마음이솔직하고 입이굼떠서 남이말하는대로 그대로 받고반잇답되까?』

보옥은 맛딤 보차가 돌아지는바람에 매우 무료해서 하든판에 또 며옥이가 이러말을 항으로 더욱 불쾌해서솜씰마되나 하랴고하다가 또 대옥이가 돌아지게 될가염려되여 어쩔수업시 꼭참고 아주풀괴업시 그만 나와버렷다이때는 한여름이라 아츰밥도이미지낫스매 각골에서 상천과종할것업시 태반이나진낮에몸들이 노곤하야 제가끔 쉬는중이다 보옥이 뒤짐을 지고 여긔저긔 가보아도 모두나라가자는듯이 고요하엿다가모의방에서 나오면서 서쪽복도로 나아가니 거긔는 봉커의 커소이다 중문밖에 이르나 중문은 꼭닫혀잇다 봉커의규모가 더운날에는 매양한시간쯤 꼭쉬는줄을알매 들어가는것이 불편할듯하야바로뎌문으로 들어가보 왕부인이잇는방으로 들어갓다 거긔는종아이 몃사람이 손에는 바느질을 들엇스나 고개를꼬고졸고들잇다 왕부인는 안시간평상우에서 잠이들엇고 금천이가 겻에안자서 다리를 주부르는데 역시 눈을 살금이감고 꼬덕거린다 보옥은 가만히 앞으로가서 그의 귀의고리를 살작잡아다리니 금천은눈을뜨서 보옥이가 온것을보앗다 보옥은 소근소근이 웃으면서

『어머지 곤하냐?』

하니 금천은 입을쥐고웃으면서 손짓을하야 보옥이더러가라고하고 며컨히 눈을감는다 보옥은 이런광경을 보고마음에연연하야 좀더나가기가 어려웟나 가만히 왕부인이 잠이들엇나를 살펴본뒤에 자긔주머니에서 향설윤진단(香雪潤津丹)한개를 끄내여 금천의입에다 너허주니 금천은 눈을감은채 그냥십는다 보옥은 참을수업시 그의손을잡고 소근소근이

『내가 마님께 너를달라고할것이니 우리갓치잇자』

금천은 대답이업는데 보옥은 또

『마님께서 개시거든 내가말슴을 엿줄겟다』

금천이 눈을 떠서웃으면서보옥을 밀치고

『대련님은 무에그리 밟버서그러시우?──금비녀가 우물에 떨어지면 네것이면네것대로 잇나──는 속담까지도잘모르시우? 내가대련님에게 묘한방묘하나 가르처줍께! 데렌님을방 저동채로가서환(가환)아가하고채운이하고나 잡으러가시우』

보옥이 웃으면서

『누가 남의일까지 알앙곳한단말이냐? 우리는 우리이야기나하지』

이때 왕부인이 벌덕일어나면서 금천의 뺨을 한번 내갈기고

『요못된 화냥년갈으니 쌤이참한녀정네들을 모두 너갈은년이 못쓰게 맨들어놋는구나』

하며 욕을하는데 보옥은 왕부인이 일어나는것을 보고는그만혼이나서 달아낫다 금천은 한편빰이 불날듯하는데감히 말한마듸도 못하고잇섯다 그길로 여러종아이들은 왕부인이 깬것을보고 모두 얼른들어왓다 왕부인은 곳옥천이(금천의아우)를 불러서

『너의어멈더러 들어와서 너의언니를 다려내가라고 불러오나라』

하엿다 금천는 이말을듯고급히 꿀허안저서 울면서

『제가 다시는 감히 그레지안켓습니다 마님께서 따려주시든지 꾸짓으시든지 저분대로하시되 그저 저를내보내지만 말아주시면 그은혜는 한울갓겟습니다! 제가 근십년동안 마님을 모시다가 이번에 쫏겨나가게되면 저는 무슨낫으로다시사람을 보겟습니까』

이처럼 애걸하엿다

왕부인은 본듸 인품이 넉으럽고 인자해서자래로 종아이들을 한번이라도 따려본일이업섯는데 이제금천이가이저덤염치업는짓을 하는것을 보매이는평생에 가장미워하는것임으로 분함을이기지못하야 한번따리고 몃마듸욕을한것이다 비록 금천이가 애걸하엿스나듣지아니하고 필경금천이어머니백노파(白老婆)를 불러다가다리고 나가게하엿다 금천은할말업시 부끄럽음 먹음으며욕을잡고나갓다

謹賀新年

000038

春川

春川商工會

春川天主敎會 春川小花幼稚園

春川邑內本町通 春光醫院 公醫 崔學云

春川郡新南面松岩里 池奎汶

春川邑內 朝鮮料理 漢城館 主 朴吉鉉

春川電氣株式會社

江原道金融組合 江原道聯合會

春川貞明女學校 麟蹄貞宜女學校 洪川貞淑女學校 加平貞熙女學校

春川郡新北面 泉田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春川金融組合

春川邑內大板里 善映商會 主 黃潤秀

春川殖産銀行支店 支店長 佐佐木恭

春川牛頭水利組合

春川 江原道土木請負業組合

春川 池奎尙

基督敎朝鮮監理會 春川地方監理師 李敬重

春川郵便局 山手德四郎

春川營林署 東阪市太

春川 東山面 職員一同

春川飮食店營業組合

春川邑內鶴洞里 朴鳳發貿舖 成周喆

春川邑內大板里 三友商會 主 安金泰運 山信

米穀雜貨 春川邑內佳淵里 金址潔商店

春川邑內大板里 江原トラック運輸部

中華料理 春川 福聚同 主 畢振東

春川 泉田金融組合 職員一同

喪中欠禮 春川邑內大板里 尹貞

春川 新北酒造組合 代表 李奉瑾

春川邑內 砂器鐵物 姜永根商店

春川邑大板里 精一號 主 趙基澤

釜山

釜山府寶水町三丁目 李聖順

釜山府瀛仙町 辛壽甲精米所 電話一七五番

釜山府瀛仙町一五四一番地 普生醫院 李鍾一 電話一二二番

釜山府富平町一丁目 協同印刷合資會社 電話六八九番

釜山府瀛仙町 河成精米所 河成龍

報恩

報恩邑內 榮榮會長 李錫來

報恩面月松里 金銅鍊

報恩邑內 司法代書人 宋錫晋

報恩邑內 司法代書人 金學奎

報恩面竹田里 張志鏞

報恩邑內 金在洙

報恩三竹面仙谷里 崔哲根

報恩面竹田里 郭鍾元

報恩炎釜面求仁里 李昌善

報恩俗離面舍內里 金昌鎬

報恩炎釜面坪角里 林炳奎

報恩郡俗離面下開里 宣政薰

報恩邑內 韓東醫院 朴麟緒

報恩郡廳 報恩各面事務所

報恩郡老面世中里 白樂善

報恩郡南面豆谷 鄭哲洙

報恩邑內布木商 宏源號

報恩邑內 福生東

羅州

羅州面士界里 許永奎

羅州面士界里 許國香

羅州邑內 鄭安民

羅州本町 錦城燒酒製造元 李昌洙

北門町 京城旅館主 李錦子

道評議員 金炳斗

道評議員 林炳元

羅州警察署

羅州本町 湖南醫院長 金明濟 電話五十八番

羅州榮山浦 榮樂館主 金炳五

羅州榮山浦 榮山醫院 崔翼鴻 羅州榮山浦湖南出張所 崔翼智

羅州邑內 金上炫

榮羅金曜會

羅州木町 精米業 李連奉 電話六十三番

羅州興農株式會社 白南善 李奇順

羅州邑內 白南善

羅州邑內 金乃現

羅州邑內 朴正業

羅州邑內 梁奇枰

羅州邑內 尹南鉉

羅州西門町 羅州改良帽子製造所 曹在源

羅州本町 紙物文具商 漢英堂

羅州本町 朝日洋服店主 趙東鎬

羅州邑內 金昌祚

羅州邑內北門町 尹伊伯

羅州西門町 고무靴店主 金應烈

羅州果院町 羅新洋服店主 孫周彦

羅州本町 和成商會

羅州北門町 回春藥院 金斗明

羅州果院町 福元商店主 鄭福基

羅州本町 相信理髮舖 金良淳

羅州西門町 食料品雜貨 尹昌祚

羅州南門町 朴興柱

羅州本町 丸吉洋服店

羅州大正町 朴東俊

全南羅州 宋甲武

羅州郡廳 司法代書人 崔純熙

本良水利組合 林炳權 朴成柱

羅州本町 奈良ラサ商會 羅州支店代表者 朱道楠

羅州錦城町 羅州印刷所 電話五十一番

羅州郡榮山面大基里 車吉煥

鳳凰金融組合 鄭迴運

羅州邑內 鄭迴喆

鶴山水利組合

羅州 無名氏

羅州 無名氏

榮山浦齒科 朴長柱

公山普校 梁吉成 趙萬吉 鄭金鉉

羅州公立普通學校 羅州公立農業實修學校 職員一同

榮山面監理 尹成鎬

羅州郡廳職員一同

羅州郡羅州面職員一同
羅州郡金川面職員一同
羅州郡老安面職員一同
羅州郡榮山面職員一同
羅州郡多侍面職員一同
羅州郡文平面職員一同
羅州郡三道面職員一同
羅州郡旺谷面職員一同
羅州郡平洞面職員一同
羅州郡山浦面長韓百彦
羅州郡鳳凰面長徐大洙
羅州郡細枝面職員一同
羅州郡本良面職員一同
羅州郡公山面職員一同
羅州郡茶道面長洪涓植

洋品百貨店 羅州協同商會 電話六十五番

羅州邑內 鄭鳳鎬

羅州邑內 金禎奎

羅州邑內 醬泉酒造元 朴用錫

湖南線榮山浦 海陸物産客主及旅館主 朴奉一 電話一〇八番

朝鮮日報羅州支局 宋相基 金世平 金亨浩

朝鮮文壇에訴함 (五)

『早熟』과『早老』의別

鄭寅燮

……○……

(十二) 硏究的精神(넘우나 平凡한感覺)——創作과 批評의關係에는 여러가지議論이 잇자마는 創作은 批評의拘束을 超越한다는것과 批評의支配를 밧는다든가 또는批評이압선다든가 創作이압선다든가 並行한다든가 하는것이 가장만히 論議되는것이다

그러고 또어느것을 過重한가 또는批評은文學이아니고 作品만이 文學이라는等 여러가지議論을 나는여기서區斷히 말하지안코 바로結論으로서그 두가지가 다文學的所産이라보고그리하야 朝鮮의文壇에잇서서創作이나批評이나 그가운데 좀더硏究的精神이 濃厚케주엇스면하는늣김을 말하고저하는바이다

……○……

몬저『文學은天才를要한다』는 趣味의局部的解釋으로『文學은工夫업시도 지을수잇다』는 誤解를가지는사람이許多하다 다른文化科學은 特別히硏究하야되지마는 文藝生活은 놀기삼아하드라도 能히할수잇스며 또는아모硏究업시 文士가될수잇다는 見地가朝鮮에도 濃厚한줄생각한다 그리고 或者는外國作家의例를들어 特殊한學的履歷업시 文豪된사람을말하기도한다

그러나 이러한意見은 極히皮相的이어서 其實際的事實與否와事物의觀察에認識錯誤가잇는것에不過하다 勿論『淺薄한地境의藝術作亂』에滿足하다면 別問題라할시라도 좀더큰것을目標로한다면 到底히硏究的精神을無視할수업는것이다

先進外國文豪가운데 履歷이貧弱한者가잇지마는 그들은大槪『社會的文化敎養』과『體驗的實生活』과『個人的進出試鍊』等의어느條件이라도 하나는가지고잇는것이다 社會的文化敎養으로서는 出版界의隆旺 圖書館의設備 講演의豊富其他社會敎育의影響을말함이요 體驗的實生活은 生活의苦海에서 人生의哲學을 實際로맛본 具體的實感을말함이요 個人的進出試鍊은 習作에서習作으로 落選의連續 惡評 同人誌等其他『애닯은努力』을말함이다

……○……

그런데 朝鮮에잇서서는 첫재 社會的敎育施設이 貧弱함으로 家庭敎育 學校敎育에依하려하나그것조차 過渡期的不自然이잇서 더구나 文學에關한讀物과指導는 훨신나히만하서 外國先進社會의兒童일것가트면 十歲前에읽어두어야할作品들을 저우中等學校 또는專門學校에가서읽게되며 或은大學에가서처음으로 보는兒童文學의種類도잇다 勿論最近에는兒童藝術敎育이 隆旺해져서京鄕各地로 어릴때부터多少間藝術感의試鍊이란것을 볼수잇지마는在來로는정말 朝鮮의兒童들은 不幸이엿다

이리하야 現朝鮮의文壇에는 一流文人가운데도 或時는그作品의感覺이 極히『藝術感의入門』에서 徘徊하고잇는듯한늣김을주는수가잇다 그러나 現在의過程으로서도 各文筆家들은 自體로서는 여러가지苦心努力한것이잇슬것은勿論이로되 그들가운데는 交涉關係 財力關係 年限關係로 文壇의地位를占하고잇슬지라도 其實試鍊이不足하여 더구나深刻한體驗도 업슬뿐더러 그러타고 何等의硏究的態度를가지지안흔 無能者들도업지안타 小說몃篇읽어보고 詩나몃個印刷化되엿 거긔서『藝術의胞衣』을벗기는『朝鮮文壇的미-로』가 許多한것가태보인다

……○……

勿論엇던作者와評家는 오래동안 內容的事實을調査하야或은歷史小說로 或은目的作品으로 또는文明批評的 啓蒙的心理描寫的 各方面으로 硏究精神에依한作品化又는批評化가잇지마는朝鮮文壇全體의總體的傾向으로보아서硏究的精神이缺乏하다고할수잇다

이리하야 作品의思想과表現은너무나너무나平凡한地境에서沈滯되여잇는바이 許多하다 硏究的精神은 반드시 硏究書籍을읽어야한다는것이 아니다 直感으로 自然과人生과社會을觀照할때 거긔에는 깁흔게[illegible] 東에서 西에서 바르엽흐로 뒤치고과고……이리하야思想으로나 印象으로나또는表現的으로서나 무슨新鮮味를表示할시라도반드시 特別한獨創的偉大가잇서주기를 바라는바이다

……○……

『조란』의調査的精神을 朝鮮의文壇에서도 보고십다『발작크』의感覺을『모-[illegible]』와가튼大作『고-리키』의體驗『대마르크』의報告『싱크래어』의 暴露……이모든것의 藝術的試鍊속에는 科學者의實驗 歷史家의調査大探偵家의推理 其他모든學問의精髓한方法과가튼『커다란硏究的精神과 非凡한感覺』이內在하야잇는것이다

朝鮮의文壇에關하노니 좀더硏究하는精神과感覺의試鍊이잇기를! 다만『新奇』를찻고『奇拔』만에 奴隷되는것도 作家로서 取할바아니로되 그러타고『넘우나 工夫가들어잇지안흔글』과『넘우나 平凡한感想』도結局큰것이되지 못하는것이다

文壇側面觀【六】

―左右派諸家에게質問―

梁柱東

『革命家의안해』中의孔爾은 엇지하야革命家이엿스며 春園은 그一篇中에서 대관절무엇을보이고저하엿는가 다만 一個의『寶話』인가 或은一個의『挿話』인가 單純한『古談』이나『에피쏘-드』를爲하야執筆하기에는 實로讀者大衆의信함이 넘우나 두렵지안은가 歷史小說이면 맛당히 作者는 그史料를通하야 現代的意義를提示함으로써 目標를삼아야할것이오 時代相을그리는小說일진댄 現代의作家는 모름직이 自然主義的態度(아니春園의態度는오히려 羅曼主義에가깝나)로부터 一步를더나가서 事件에한供讚的 社會的解決을주거나或은 暗示라도하여야할것이다

◇

나는 最近의春園이 그現論에나 作品에나 甚히無力化하엿슴에對하야 春園을極端으로崇仰하얏스니만치 公的으로失望하고憤慨하는者이다 春園으로하여금 現代作家로서 더구나今後의作家로서一般의光輝가잇게하라면 처어도春園은그思想的內容을質的으로 昂揚할必要가잇다고본다 氏는單純히'?-날리즘의誘惑下에서 未自覺層의人氣』民相對로하는一個의[illegible]는中의天才로서니쁜야大衆小說家로서 滿足하고말것인가

나는 氏의才分과敎養이크니만치 氏의作品과思想과長點은 모조리접어두고 以上의苦言만을 虛心坦懷로 氏가生活의[illegible]이다 氏는 또例의[illegible]로밧지암아 足히드틀바업다하야 一笑로말것인가

◇

新聞紙의評家는 近來氏의作品에對하야 全然히無關心으로『歡鼓』의方針을 取하는모양이다 春園은이미階級的立脚地가決定되엿다하야 그의作品의役割을 決定的으로 얼으조아的이라보고 따라서그들은氏에게서 다시아모런期待를가지지안는모양이다 이러한方面의批評도春園에게는 他山의石으로一參考가되겟지만 氏는到底[illegible]의期待을밧지안는듯하다 그러나 나는오히려氏의作家生活의압날(그의能熱이許한다면)에對한期待를 放棄치안는者이다 氏가 于今그대로抱有하엿든浪漫主義를 止揚하고 보담高度의새로운民族主義로質的進展을 하게되는날이잇다면 그의作品은劃期的으로새로운時代的意義를 띄고나오게될것이다

一九三一年의春園은 어떠로나가려는가? 보담高度의暴露로 今後의民族主義者一群은 어대로進展하려는가?

文字普及歌

選外佳作 鄭鎭石

一、아하 글소리 들린다
동트는 강산에 글소리들린다
입술은 잠잠 한숨을실고
겨레의 원한쫓아 못읽엇드니

(후렴) 기역 니은디귿 리을 한
글을배우자
백두산 기슭에 새힘이
솟는다

二、아하 붓대를 잡앗다
손목은 그손에 붓대를 잡
앗다
마음은 둥둥 구름을타고
가슴만 우락가락 슬어지드니

三、아하 책장을 넘긴다
두눈을 부비며책장을 넘긴다
눈앞은 캄캄 어둠을안고
새날에 기약쫓아 못보앗드니

柳仁春

一、黎明의鐘소리가 들리어온
다
우렁찬외오침이 大地우으로
(後斂)에
우리文字普及班 萬歲萬歲
錦繡江山三千里 坊坊曲曲

二、묵은찌집모두다 벗겨버리
고
생긔잇고꿋꿋한 싹을각구세
라

三、맘과뜻과힘을어 기름주어
앞날은우리의것 깨인이의것

貫齋 李道榮氏筆

世界文壇의 一年間變動 (五)

異河潤

朝鮮에서도三千里賞이라는것을施設하고 文學賞과科學賞을수기로 햇다는말을들엇스나 아직엇더한實現을보여주며 그組織如何에따라서얼마나한權威를가질것인가하는것이 자못社會의注目거리가 되기에充分할것이라 고생각한다

이러케世界의文學界는 何如튼外觀上으로 如前히盛劇을이루우며압으로 進步하는늣이보히는中에 그러고

文人 들에게 亞米利加四萬(?)의詩人이 飢餓(?)을 부르지수업다고 別般조치못한일이업즌外에는 다만東邦의女詩人으로 그名聲이歐洲詩壇에燦爛히빗나든 印度의『사로지니·나이두』女史가 詩筆을擲코히억거바리고『간듸』와『[illegible]』의뒤를니어 全印度國民運動의指導者로나섯다가 英國官憲에게逮捕되여自由롭지못한몸이되고말엇다는不幸은 實로누리에 거부엇을暗示하여주는가 그의세俗의詩集은 그를굿굿내眞實한詩人임을 證明하여주는一面에그가일즉부터 政府的方面에投身하여오다가 마츰내는 一個 女子의몸으로重大한 責任을지고나가게된것이니 엇지世上의耳目을놀래지아니하고지낼수이엇스랴

이러케써오고보면 지난一年도決코 平坦한一年이아니엇슴을알수가잇다 그러면戰爭小說이가장커게떨리고『[illegible]』의小說이아직도人氣를놀치안엇다

는露西亞에서는 엇더한일을記錄에남기엇는가 民衆藝術로서演劇에힘을集注하는만치 莫斯科의國民劇場은 만흔佳作을演出해오든것이나 지난七月에上演된『못소두스키』의紀念『코인스치나』는 近來의드믄傑作이완니고하며『쏘벳트』의劇場이外國으로進出한다는

所聞 을퍼처 노코巴里로갓고[illegible]하엿그러다 그들이더욱世上을놀내게한것은 詩人에게軍事敎鍊을시키기로하고[illegible]

詩人 이나小說家는詩나小說만을쓰려고存在하지아니한다는소래를크게웨친것이다 이러케새로운그들의本質을낫하내면서도그들의古典을尊重하는것은 歐洲諸國에다름이업서서數年前에『톨스토이』百年祭에는記念全集出版에着手해온것을미루워보아알것이다

그런데지난二月一日부터十五日間莫斯科에서는著作聯盟主催下에 詩人『마야코프스키』의過去二十年間文藝作品에關한展覽會가열녀엿는바 이展覽會는勞働者와赤衛軍隊를비롯하야各方面의人氣가集中되며 每日거처大衆員의盛況을이루엇슴으로

開催 期間을一週日이나延長하고다시『레-닌그라-드』에서도열엇스나 展文移動的으로各都市에서開催하는同時에『레-닌』博物館內에永久히保存할일과및『마야코프스키』의作品을普及版으로發行하야널리小學校에頒布할일도한편으로『마야코프스키』에게 民衆詩人의稱號를贈與할일等이 決議되엿다는消息이잇섯다 이런것도 實로意味잇는事業이아닐것임은勿論여긔에揷入할充分한材料가되는것이나 그와前後해서여러번일만한報道가잇슴으로 더욱우리머리에 또렷한記憶을남기워노핫는것이다

그것은 卽이消息이들닌지얼마안하야 莫斯科電報는『마야코프스키』가 그事務所에서自殺을 햇다는것을 알니웟다

한글紀念歌 (其一)

選外佳作 趙月千

一、나라마다 족속마다 제글
잇으나
이글월에 지나갈것 다시 있을까
배기쉽고 쓰기쉬운 보배중보배
우주간에 못찾을것 하나없도다

(후렴)
상하인민모도 캄캄 어둔
방중에
세종대왕임검께서 한글
을지어
온누리에햇ㅅ볕드신시월
二八일

一、이빛남에모여들어 노래
부르세
배낙홈이닥여잇는 조선
것이니

二、오늘까지남겨온건 우리
조선사람 조선으로 길이간하세
조선자랑 조선목숨 이것뿐이다
이것보다 더귀한것 어듸 있으랴
지난날에 쌓우인검 활작헤치고
파고캐세 갈고닦세 케빛나내세
온천하에 널리퍼처더욱빛내세

新春文藝……【3】 懸賞作品選後感

時調、童謠……其他

想涉

○

前者小說選後感中『비오는날밤』에對하야 若干誤解되기쉬운點을 發見하얏기로 釋明하야둔다 첫재『속알딱지업고 배호지못한者의말이다』란句節이잇는데 이것은勿論作中人物S를 가르처한말이나 作者를두고한말가티 誤解될까念慮되는바이요 둘째終末에『作에表現된作者의人格이좋다』고한말과 相關하야作者의人身에關係된듯이보이게되엿슴은怨忙中 나의意思表現이不充分한탓이다 推敲할餘裕가업다가 印刷된後에發見하고 그作者宋君에게對하야 未安하게생각하얏슴으로一言하야두는바어니와『作의表現된作者의人格』이라는것은 이作에表現된 作者의人格이아니라『作者의觀察하고表現한바 S의人格』이 좋다는말이다 設或이作品에낫하난作者의人格이좋다하드라도 그實在한作者의人格이 좋시안흘수 잇는것이요 또좋고납븐것은 나의關知할바도안이니 여긔에論議할性質의것이아님은 勿論이다 誤解업기를 바란다(이것은 作者의抗議나質問이잇서서쓰는것이아니다)

○

時調== 는李殷相氏에게委囑하야 選하얏는데 成績이良好치는못한모양이다 時調는現代意識 現代氣分과 背馳된다하야 그復興에反對하는傾向이잇고 또今日은 新詩—新詩보다도小說의時代인關係上 創作慾을 刺戟치안는所以라고도보겟스나여긔에는 그理論을말치안는다 다만 몃마듸注意할것은某某作家의作品을 剽竊複寫하야投稿한분이잇슴이다 詩에도그런不美한일이 잇섯고 小說에도『귓짜리』라는作品이年前에어대서인가본作品을그대로벗기여보낸것이잇섯는데 이러한것은 實로唾棄하고도남음이잇는小人의作戲이다

○

童話와 學生作文== 두가지가다ㅡ一篇도 選拔할수업섯슴은 이번結集에 큰유감이엇다 童話의豫選이四篇이잇섯스나 (一)는赤貧少年의强盜放火로 結構된것이니 그것이 비록爲親과階級的反抗에서 나온것이라하야도童話로는容許치 못할것이요 (二)는露骨的宣傳性의 것이요 (三)은無內容한것이요 (四)는 時代錯誤의것이기로 섭섭하나마그대로落選케된것이다

또한學生作文은 今日의中學生이 早熟早達하고 또發表의自由(機關上으로는말이다)가 比較的잇는것과 制作의能率이 發신進步된것(個中에는 眼高手卑하야 苟苟히學生作文에 投稿키를 幼稚한小學生의일로鄙想한탓도잇겟지만) 等理由로佳作이업섯든듯십다

童謠== 는無慮千餘篇의應募이엇다 大體의그傾向은 意識表現에 焦燥하는모양이보이나 題材가 千篇一律的이요 從來의努力하는분도 新境地를 開拓하지못하야 習性에끌려가는것을 看取하얏다 昨今과가티 兒童文藝에關心을 가지게된때도업것스나 아마 이러한 硏究修練의苦悶彷徨期가지나야 第二期的으로 新生面이 보이게될것이요 獨目할만한作品이 나올듯하다 또在來에 投稿하든분으로 應募한분이 얼마아니되는것은 아마임의一家를成하얏다하야 懸賞가튼데應募키를 不肯하는外닭인지도 모르겟다

○

以上 諸考選에는 時調를除外하고서는 安夕影 朴八陽 金麗水 李潟禮諸氏와 筆者가參與하얏슴을 附言하야둔다

新春漫畫當選者

二等 京城 馬慶周

選外佳作 京城 金英根

同 鹽室里 朴仁範

한글紀念歌 (其二)

選外佳作 木古京

一、우리자랑
우리빛
우리의밑천

二、쓰기좋고
흠없어
자랑이오빛

三、새론조선
밝을길
밑천인한글

四、노래하세
한글의
태어난날을

五、노래하세
한글의
태어난날을

車用運

글이란글의 精華를뽑아
聖人의손에 만들던한글
나죵에피고 가장꼿다워
관막은이글 글中의참글
人種과國語 一切를넘어
萬方과萬人 제각금제글
이글의힘과 빛이날적에
人類의心靈 새눈을뜨네
글모른사람 하나도없을
唯一한正音 트신이날에
世宗님마음 다시몸받아
한글의生命 새롭게하자

三代 (6)

廉想涉作 安夕影畵

홍경애 (三)

경애가 곱보술은 바다서마시는것을보고 덕긔는 외면을하얏나 처음에 소리를처며희히락락하야 내닷는 그꼴에도가슴이 덜컥나려안는듯이 불햇지만 그술마시는데에 한층더놀라고 미웁고 가엽고 더럽고한 복잡한감정을 참을수가업섯다

부친에게 이꼴을 뵈엇스면조켓다고 생각하얏다 부친에게대하야 이때것 늣겨보지못한 반항심이 붓적 머리를들어올르는것을 깨닷다

그러나 경애가 술을이러케막우넘는것을보고 놀란사람은덕긔뿐이아니엇다

『엇저자구 이래? 오늘은누군줄 낫나?』

주부는 경애가 작난으로대개삭아 그러는줄만알고 웃으며 바라보다가 정말 반곱보터이나 흘너드러가는것을보자질겁을하면서 경애의입에서술잔을 붓들어 뜰어나렷다

『에구 이게 얼마야! 이러구두 사람이 베이나!』하며주부는 나려노흔곱보의 술대중을본다

『그술잔을 내게 물려보내주더야지! 괸히[illegible] 굿너게하는군! 아이상! 어서 그잔을마시고 내주우』

병화는 가만히안저서 이사람저사람 눈치만보다가 남은술을 다시 경애에게 권한다

『난 참실혀요 어서 당산부터……나먹든술은 못자시겟서요? 뿌르조아의술도 어더먹는데 나먹든술은 더러워못자시겟소?』

어느름에 병화와 덕긔의새에 도다와안즌 경애는 이런소리를하며 자긔가 먹든 술잔을 쏘려다가 병화의압흐로미러노는다

덕긔는 경애의압에서『뿌르조아의술도……』라고 비꼬는말을듯고 또한번 가슴이 선듯하면서 무심코 늑란눈을경애에게로 보냇다

대관절 이녀자의정체(正體)를 알수업다고 도리어 무서운생각이 들엇다

『자ㅣ 마시세요!』하고 경애는 제가 먹든잔우에 더부어 갓득 채운다

병화는 기다렷다는듯이 선듯 들어서 벌썩벌썩켠나

『이젠 가세』

덕긔는 병화가 안주도들새

그말이 지나는인사거나 우부리는사람을 쏘짓인으로서 주착업는어린는어투가아니라 남으래는것가티 다동생이나 들리엇다 두칭넌은 정스러히 그것이자긔에게나 당한일가티 고마운생각이 들엇다

『나두 이만한술은 먹어요』

경애는 언케들으나 도리어 얄미울만치 허숫이도는일본말로 이런소리를하고 무슨대담한작난이나한뒤의 어린아이처럼 얼레발치는웃음을 생글웃어보이며

『담배 좀 아를 실례해요』하고 기지노힌 한개를쏘내 부친다

덕긔는 담배ㅅ불을 부치는 동안에 경애의얼골을 잠간엿보앗다 그러케보아서 그런지 새빨안두눈에 청냥불이 어리어서 그런지 눈물이 글썽글썽한것갓다

(그래도 우는고나!)고 덕긔는 도리어가엽슨생각이낫다

예전에 가티 비롱학교에 다니고 교당에다니든생각을하면 이러케도 변하얏스라——이러케도 타락하얏스라 싶건만은 지금이러케 술을먹는것도 화푸리술이요 하등카페ㅣ의 녀급(女給)노양으로 무랍업시 손님의탁배를 케마음너로 피어먹는것도 화푸리로 그러려니하는생각이 들엇지만 그보다도 눈물을먹음는것을보니 그래도 아주타락하지안흔곳이 남아잇는 것가타야 보이고 그러케생각할스록 측는하야보이엿다

업시 재촉을하얏다 독개비에게 홀린것가타야서 인제는 더안젓슬수가 업섯나

『가만잇게! 아이상 말맛다나 뿌르조아술을 어더먹으니와 이러케 세도인가? 먹을건먹어야가지안나』하고병화는 주긔가 돌으니만치 륙쾌스럽게 대ㅅ구를하고『오뎅』을어귀어귀먹는다

주부는 좀먹슥해젓다 덕긔는 쌀쌀 웃는다 실상주부가우은것은 병화가게검스럽게 먹는것을 보고웃은것이나 덕긔생각에는 병화나경애가비교으노이 주부역시 자긔를우스쐉스럽게보고서 비웃는것인가하야열적어 하엿든것이다 덕긔는 잠잣고안저서 세사람의눈치만 보는수밧게업스나 세사람이 자긔와는딴세도그세사람들이 아모리보아상사람가타얏다 세사람이 입을보으고 자긔만 따돌려세인 것가티 신신한생각이 들엇다

『참 이량반 약주를 좀잡스서요 색시처럼……』

주부가 인사ㅅ청스럽게 다시 권하라니까 덕긔에게 알는체를하고 술을

『아즉 도령님술나요 내가먹지!』하고덕긔의 압해 노힌술잔을 얼른들어오면서 별안간 조선말로 덕긔만알아듯도록만치

『써라먹을수만 잇스면 부자의피를 다ㅣ 싸라먹겟는데』하고는바로아컷다『부자』라는말은『아바아들』이라는말인지『부자란말』인지알수업섯나)

瑞山

瑞山樹苗養苗所

富春養鷄所 趙南宗

李相勳

朴熙生

李揆唐

金鍾協

京城屋洋服店 朴聖圭

瑞山郵便所長 川瀨渡

常春醫院 洪憙裕

海美面事務所

海美公立農業補習學校 恒松孝

海美公立普通學校 川西幸男

海美金融組合 金禹鳳

雲山 金聖培

大山 李鍾甲

瑞山 明月館

瑞山 海一館

雲山釀造場 尹命秀

張基龍

瑞山郡 余美公普校

泰安郵便所長 藤戶次郎

泰安邑內 金圭楨

泰安面長 李基八

泰安面南門里 白南復

雲山駐在所

音岩駐在所

金寶斗

安眠島駐在所 賈秉龍

大東學院

姜泰愚

牟炳昊

崔東島

安眠面事務所

瑞山郡廳

瑞山警察署長

瑞山學校 馬場校長

赤井

瑞山釀造場 羅昌憲

八峰釀造場

瑞山酒造組合

瑞山釀造場 羅秉昌

朝日自轉車店 宋精善

韓秉俊

鄭玩好

瑞寧齒科醫院 金鎔奉

泰安 華林農事實習學校 華林農場

安眠島麻生會社 林省三

向上商會

朴友性

柳基南

李玫鎬

島村仁助

消費組合

瑞泰洋行 尹起燮

美顔寫眞館 尹道俊

瑞山寫眞館 柳重海

李完福

樂園食堂 沈[illegible]

音岩公普校

聖淵面長 韓明愚

雲山面事務所

素麵製造業別 金英權

淨石 金永福

大山面事務所

地谷面事務所

南面事務所

南面公立普通學校

瑞山樂隊

瑞山洋服店 村[illegible]龍

安眠面長谷里 有志 [illegible]文善

先進으로서 後進에게 보내는말 (5)

우리녀성은어떠케살어야할가

새해의새포부, 희망

畵家 白南舜

모든일에잇서 리론과실케는 넘어나다르다는것을우리는뼈에로늣김니다 현실의 실사회의모든것은책상에서생각든바밝안에서늣기든바와는넘어나 다른것입니다 이러한의미에서임이 사회에발을내노코 사회의일원으로 활동하고잇는우리의선진들의귀중한 체험으로부터엇는만흔포부와희망을 새해의새활동의한낫참고 로듯는것도 또한뜻깁흔일일것입니다……

커와나아로보든지 경험으로 보든지 저의선배가 얼마든지게시나 후배에게 일너줄말슴이잇다기보다도 선진하신 여러분에게가르침을 만히밧고 십습니다

그분아니라

그림은케장귀이니 그리란대로 그릴지모르겟습니다만은 쓰거나 그런주거넘은말슴은 일체로 안하기로작정입니다……

그저저의 감상이라고나 할가요! 우리들도 좀더그러케되엿스면하는……

불란서에가서 어학을배호고 바로어떤중류가정에잇게되엿습니다 그가정은 사십넘은파부어머니와 뒤삼형제가잇섯는데 어머니는 피아니스트 큰딸은성악가엿슴으로 온식구가모다 예술에대한 감상이깁허서 제가컨심하고잇는……

미술에대해

서도퍽리해가만헛습니다 그들은이러한예술에대한리해와또한가한생활이엇슴으로저녁에는매개극장가든데가서놀다가늣게도라오게됨으로 자연히아츰에는 늣게 이러남니다이아츰시간에는 커는매개아카데미에가서 그림을그리엿슴니다만 여하든 그들은그림에대하여퍽취미를 갓고모녀가 늘압에게그림에대한 평도해주고 또어머니되는이는 밤두시 세시짜지 저가그림을 그리고잇슬때도 꼭직히고안저보아주엇습니다이러케지내는동안에 미술에 대한 그들의 감상력도 퍽놉어가서어머니되는이는 혹아모에나가 한번그림을 그려보겟다는고하드니하로는밧게나갓다도라와보니

피아노우에

흘륭한그림한장이 노혀잇섯습니다 그그림은그주인 마누라가 그린것이엿섯는데 아조잘 그렷엇 습니다 이것을두고봄에 조선부인으로서 사십만넘게되면 누구나다 집안살림이나좀보고또더욱파부라면 아이들이나 잘길르면서 산다는외에는 아모다른 생각이 업승니다 말하자면 더좀할귀잇게 무엇을 해보겟다는 욕망이나 취미라고는 조곰도 업승니다만 그들은 사십이넘은 그나히에도 모든일에 대하여흥미를갓고 해보려는 일에대한욕망을 갓고잇습니다 또한가지레로『프래-쓰』라는 오십이넘는이가 마르세유근항(近港) 투롱에서 개인미술전람을 한다기에 일주일동안 조처간뵈이 잇섯는데 그는일일동안

어떤경치조

흔려판에서 아모도 접근치를 못하게하드니 일주일뒤에 비로소공개를하엿는데 그의정력에는 실로놀라지안홀수 업섯습니다 그는그일주일동안 밤안으로 하나가득히 그림을 그려노앗섯습니다 이것으로 봄에에도 우리조선사람은 이미나이 오십이넘고 모든지위와 부유(富裕)를하지덧스면 이러한 생각조차 안할것입니다 그들은 모다 이러케활귀가잇고 정력이 잇승니다 우선케가 자라날뼈를 도라보드라도벌서학교에만단녀도압만보고단불것으로모다생각하고잇스며 의복가튼것도 검은치마에 흰저고리와가튼 흙은이복색을 식혀버리며 모든일에 좀더어린아이답게 젊은 사람다운귀분으로 쾌활하게 사라나지 못하고그만

무긔력하게

조숙해버림니다 우에서말한이야기는 모다 한낫레에지나지 안승니다만 여하튼우리도 좀그러한것을배화 젊은귀분으로 씩씩하게 살어갓스면 십습니다

(사진은白南舜녀사)

當選漫畵 二等

생원님과하로 (1)

市內太平通 馬鹿周

1、애-이맥주원것이냐? 2、예라! 오렛만이니 아모려커나마시자구나 3、어이취해! 맥주도술?은술이군! 4、맥、모나!이거웬일이냐사람모르겟구나

체질로본 안해와남편

어떠한체질에 어떠한배필이적당한가

비만상(肥滿相)안사람에게는 어떠한청격을가진 사람이 만흔가? 이것은대체로 쿠렛치멜씨의 주장하는바로 대단히 흥미잇는새학설입니다 여긔에그일부분만 소개하면 살진사람은 일반으로현실적이며 또세속적(世俗的)이라합니다 이중에는 여러가지형이잇서첫재로는 잘짓거리며 잘노는쾌활한자가잇습니다 이러한사람은 어떠한곳에든지 얼골을내노코절세업시짓거리며싯그러운롱당을 잘하고 작란과먹기를조화하며 애교가잇고 느리고 활발합니다만

그대신절제가 적고허랑하기

쉽습니다 둘재로는 우수운리긔심에얼리는뼈도 잇습니다 둘재로는집착한인정잇는사람이잇습니다말이적으나흥이나면유쾌한롱담도 잘나오는 솔직하고도우의가만흐며 현실에 만족하는결컨이적은사람입니다 이중에는 다소우울한편에 기우러진 사람이 잇서 눈물을잘흘리며 온순하고 겸단정이 적은 사람도잇습니다 만사람은극히선량하여적은시눌조고마한 관리에게도 아모불평업시깃겁게 열심성력으로 일을돌보는사람도잇습니다 셋재로는느러진 향락자라고 할수잇는 종류의사람들잇습니다 물론 물질적향락이 그긔본이됩니다 사람이조흐나 생각이엿고 착실성이 업스며또아모야심도 업고다만

오날을즐겁게 보내는그만이

라는 본래부터의속인입니다 넷재로는 정력적실제가입니다 이것은 첫재의외…고도 활발한것과둘재의 일에대한상심정력것과 건전한상식을 갓춘것이니 여러방면으로 정력이잇게 활동하는것을 조화하며 어떠한일에든지 쓰기에적당한 인물입니다 모두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안팟이예민하여 정치 실업에는 뼈뼈남다른수완을보혀뒤여나는 인물이됩니다 운동은 교묘하며 다녀머고정된리상가의일은조화하지안코 모다실케로 행함을 조화합니다 여하든 비만형인사람은 인간적입니다

낫부게말하면 세속적이며또

상식적입니다만 솔직하여 보는 그대로 의인물로서 맨속모듬음홍한점은 업승니다 노하여도큰소리를 발하며 또곳소낙비가한번지나가는드시 니저버리고마는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고정한주의리상을 시종일관으로 고집하고잇는것과 가튼일은 본래부터하지못하는 인간입니다 이비만형인사람이 정신병에 걸리면 흔히 조울병(躁鬱病)이됨으로 쿠렛치멜씨는 비만형인 사람의 성격을조울성격이라고합니다

吳水香 (五)

宋影

수향이는 일종쾌감을 늣겻다 관청손님이나 회사손님만 낫나서불는그는 이젓은 사나희들의 씩씩한말소리에 가슴이 흐들리엿다

그리하야 커털로 유쾌한빗이 얼골에 나타낫섯다

전에는 입부터 압머리카락을 푸수수하게 눈섭위에다 떠러트리고 고개를 갸웃하고목소리를 어리광조로 내엿스나 지금에는 감히그러케할수가업섯다 그러면 어쩐지 무서웟는것이다 그리면서 가슴에품키엿든불평을 내쏘코가십헛든것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는 오고갓다 그중에도 용래는이야기를 더ㅣ잘하고 유식하게하엿다 프로레타리아가 무엇이라는 것을 자세히설명하엿나 로동이무엇이고 농민운동은 무엇이며 그리고 녀성은무엇이다 라는것도 이야기하엿다 기생이결코 천한것이아니다 유산계급의 노리개가 되여서지내는 안타까운계급인이다 그리고 기생이만다든 몰속이아니다 ××회에 활약하는 엇던녀류투사도 기생에서분연히몸을 이러키엿다 는이야기를했다 여긔에수향이의몸은 쌜갓케달아버리엿다

아온남년 얌전한그리고 그냥활발만한 남편이나 잘낫나사러보겟다는 그의한가지 생각은 ××여지기를 시작햇다 그리고 용긔를어덧나 어느정도까지 자포자괴를하든자긔의지나간 행동이 어리석엇든 것을깨달앗다

용래는또이야기를계속하엿다 여긔에 완전히 수향이는도취되엿다

六

그뒤부터는 용래와 수향이가 친하게되엿다 수향이는 용래의 씩씩한데에 그리고 생각이조흔데에 도취가되고 용래는수향이가보통기생보다달느다하는점에 마음을빼앗기엿든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젊은남녀이엿섯든것이다

수향이도 남자에게대한 진정한사랑은커음으로일어낫고용래도 녀자와 실케로 부닥기여보기는 커음인까닭에 그들사이는 완전히 얼크러커버리엿든것이다

몃달지내는 동안에 수향이와 용래는 조그만셋방한간을 어더서살림을시작햇다

그들의 새살림밧은 아모것도 업섯다

벽에는그들의숭배하는이의사진이걸려잇고 책들만 쌔혀잇섯슬뿐이다

그리고 수향이는 중학강의록을보고 조선십지로는조선지광과『무산자』를읽엇다

커음에는 글이넘우 어려웟스나 차차 갈사록 알아보기가 쉬웁게되엿다

자긔도 남편과가티 활발하게 압줄에나서보고가 십헛지만 아즉도 자긔의 실력을 더길러가지고나가자하는데에 주저를하엿섯다

남편도 실력을 더ㅣ길러가지고 나가자고하엿다 이소리에 수향이의열심은 더욱 늘어갓든것이다

수향이가 각금정식으로 결혼식을 해보자고하엿스나 남편은 지금에잇서서 정식으로 결혼식을한다는것은 도로혀 우리들의사회를 파탄식히는데 불과하다는것이다

과연이다 만일에 결혼식을하게된다면『엄격』하기짝이업는아버지가 물론반대하실것이다 반대가 무서운것이아니라 그러면 용래도 따라서 발하고말것이니 결국 사회이낫것이다 그러면지금지내는 살림의자금이라도 나올바도가 업게된다 그리고동시들을 도와줄경제력이 업서진다 무엇으로보든지불가하게된다

이래서그양지내다가고긔회를보와서친구나모아놋코 피로연겸결혼별표나하려고하엿다

어린이소설

행복을찻고서……(四)

金哲洙

인제는 해가동쪽하늘에 동그렁케 올라와서 천지는새빗체고요ㅣ히 새여것습니다 굶주린영약한 늑대무리도 이햇빗만은아조무서워든 모양이여서 긴긴밤을사람과 싸우다가 아츰이되니까 하는수업시 어대로달어나버린것입니다 그케야 아버지는『만일에 불만업섯드면끔작못하고 늑대무리의 밥이될번햇고나』 하시며 한숨을쉬십니다 혜영이는 지난밤일이 꿈갓흔게생각이되며 한동안은머리가 앗질햇습니다

아침이라고 언룽뎍을 불에쏘여 몌개식먹고 또집을찾서 지고농장을 향하야떠낫습니다 길은역시 눈싸인곳업는 들가운데에서 아모리거러도 걸은듯십지안습니다 그러나압흐로압흐로 쉬준히걸엇드니 석양이 누엿누엿서쪽하날에 숨기라 할때에는안으도 그리멀지 안은곳에서커덕연긔가 몰몰하늘놉히 올라가는것이보엿습니다

이것을본 이세식구의 깃붐은무어라 더말할수업섯습니다 오늘밤도 어케밤과가티 늑대무리와 싸우지나안홀가? 하야근심하고 잇든중에 눈싸인곳업는들가운데서 집을맛나니 파선을당한 사공이 구조선을맛난것과갓햇습니다 쌩은거름으로 집들을향하야갓드니 집갓가이 우물에서 물깃는부인을 맛낫습니다또밧게 그부인이 조선부인입을그의옷을보고알엇습니다 그리하야 달려가서 그부인하고 여커가농장이냐고 물엇드니 그부인은 일변놀라며 그럿타고하면서 어대로서 이럿케오느냐고 뭇습니다 혜영이어머니는『조선서떠나 지금막들어오는길인데 이곳에와 엇지살수잇겟소』 하고다시물어보앗습니다 그부인은우선커음오시는길이타니아는집도업슬테니우리집으로로가자고하며압흘서서것습니다 그리하야 그부인의 집으로갓드니 일홍이집이지 집안에서는 서서다니지도못할 웅집이엿습니다 부인은먼저지은 커덕을 이세식구에게권하고 또다시커덕을 지으면서『이멀고먼 남의땅으로 살길을차저 오기는왓스나 엇더케살어가겟습니까 나도지금 아해들을나리고 죽지못해 이노릇입니다 무지한중국사람들의 학대를죽도록 바더가며 이런죽을고생은업습니다』

하며 설은사정 이야기를합니다 혜영이는 리역천리에 켜나라사람의 고마운심정을 감사하면서두만강을 건너서는 커음맛보는밥을압헤놋코 한술두술 떠먹으면서이케서야 그러케함무로 흘리지안튼 눈물을 줄줄흘리고안젓습니다

혜영이생각에는이밥을위하야그무서운위험을무릅쓰고메천리먼길을 멀다안하고 이곳을찻고나하며 눈물만솟업시 흘러나립니다 커덕을맛친뒤 그부인은 이사로이사해온 세식구에게 이곳농장의형편을 이럿케 이야기햇습니다

毛絲編物講習會

時日 一月十日부터十五日間 〔晝夜二回로分하여午後一時부터四時, 夜七時부터九時까지〕

定員 四十名 會費 一圓

講師 丁七星、韓賢愛、金貞順

科目 짜겟、만또、양말、족씨、세-타、모자각종 장갑、그외실용품각종

賞品 十五日閉成績이조흔분에게는賞品을드림 一等一人세루치마一件 二等一人우단커고리一件 三等二人문ᄒ단커고리一件式

主催 粉玉手藝舍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申請所 粉玉手藝舍〕

S-2

御園白粉

미소노백분

一九三一年蒲田新進스타ー의御園美

蒲田스타ー가모다 쓰는理由

◇ 鉛毒危險이조금도업는것

◇ 粉毒이업는배문에

◇ 化粧한것이自然스럽고푸렛수한까닭

◇ 누구의살에든지잘먹는것 等等等

有名한醫學博士森田資孝先生께서推奬하신

ノーシン

머리가몹시압흘새 노ー신

끌치가갈러지는것것치쑤실새 노ー신

간간이번두머리를알흘새 노ー신

頭痛이아니라도머리가무겁고허릿허릿할새나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새나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좃치못할새나

이노ー신한봉만잡수워보시면

神出奇妙하게도나슬뿐

만아니라平時에服用

하시더라도머리가아주

明快해집니다

藥은全國藥種賣藥店에잇슴니다

品切의節에도무리請求하십시오

000039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二十八包入	一圓

노ー신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名古屋市東區京町

一月五日낫브터特別大公開 五日間 料金均一 大人三十錢 階下 大人二十錢 小人二十錢 小人二十錢

◇파라마운트社特作 스포스喜活劇 青春狂想曲 全七卷 監督ー리챠드웰스氏 主演ー찰스로저스氏 메리브이안孃

◇파라마운트社特作 戰爭大活劇 陸戰隊모ー란 全八卷 監督ー프랜크스토렉이야氏 主演ー리챠드딕스氏 루스엘다孃 殺伐은萬里에번득이는無比의映畵

◇파라마운트社超特作 探偵大活劇 이저버려든얼굴 全九卷 監督ー빅타쉘진카氏 主演ー크라이브뿌룩氏 메리브라이안孃

仁寺洞 朝鮮劇場 電光一二八一

一月五日낫부터 特別名畵大公開 유나이테스트社大傑作 大冒險大活劇 快傑쏘로 全十卷 劍戟界의大王다그라스폐아방스氏主演 유나이테스트社特作名畵 戀愛悲劇大珠玉篇 西班牙의薔薇 全十一卷 로랜드봉맨氏빌마방크孃主演

一月一日낫부터 四日밤까지는 抱腹絶倒할大喜活劇全卷 스파벤타 八卷 黃金虫 七卷 一月五日낫부터 運幸王달마ー 七卷 이나도座

●○□△社超特作品 아리랑그후이약이 十二卷 主演 羅雲奎 李錦龍 尹逢春 柳新芳 南宮雲 李圭高諸氏

●○□△社特作品 鐵人道 八卷 羅雲奎 林運鶴 朴齊行 朴演翊金 薄實諸氏主演

紙高常設 團成社 電話光 九五九番

●●● 上海在留朝鮮映畵人의손에製作된規模雄大한朝鮮映畵는 團成社에서封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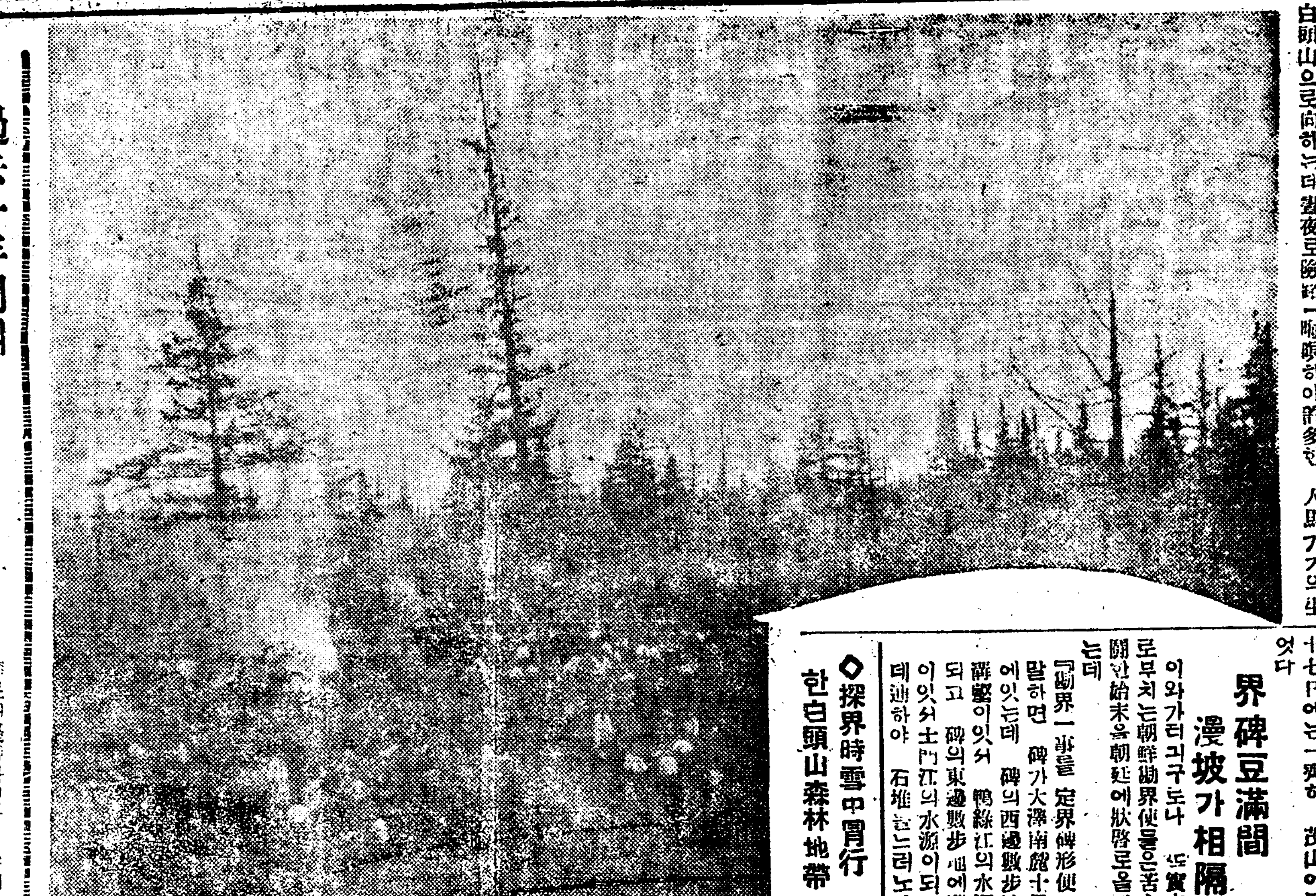
間島의史的考察

高句麗、渤海、高麗、李朝의變遷 (六)

柳光烈

清國派員의 不純한促行

十五日에從事官趙昌植과隨員李厦燮、金禹軾、淸國勘界派員德玉은가서紅溯水源을審查하고隨員吳元貞、同淸國繪圖官康榮은가서 西豆水源을審查하고勘界使는按照中軍崔斗俊과隨員崔五吉、懋興祚와淸國派員秦瑛、賈元桂等은紅土山水源으로조차곳白頭山으로向하는데晝夜로險路를도ㅅ로하려엿다 荒榛와險壁、亂木과 叢林사이로艱辛히 前進하야 二百餘里에이르니 山川이 險하게막히고 風雪이交加하는中 賈元桂는朝鮮勘界使로正界碑를滿査하자는것이 미워서 勘界使가 疲困한데못견듸어自退하도록하려하야 積雪이정강이까지빠지는 險路를漆夜에가기를재촉하엿든것이다 天地는晦暝하야許多한 人馬가거의生命이危殆할번하엿더니 艱辛히南에이철작연리며 朝日이初昇하니비로소立碑處를차젓다 當日夜宿을許하니 六十里이엿다 碑文을瞭여내어朝鮮 淸國兩派員이한벌식가지엇다 東西의水源과土堆 石堆를一一히指證하고그대로下山하는데 趙昌植는눈을審查하야盧頂嶺에이르러 눈을들고艱辛히올나왓다 이리자西豆水의勘界員이 次例로와서二十七日에는一齊히 茂山에모히엇다



界碑豆滿間 漫坡가相隔

이와가티괴구도나 또實力으로부치는朝鮮勘界使들은苦心慘憺한始末을朝廷에狀啓로올리엇는데 『勘界一事를 定界碑形便으로말하면 碑가大澤南麓十里許에잇는데 碑의西邊數步地에溝壑이잇서 鴨綠江의水源이되고 碑의東邊數步地에溝壑이잇서土門江의水源이되엿는데通하야 石堆는느러노아九十里를나갓다 堆高가數尺인堆上에는林木이 自生하야이미쎡어바림드티가되엿스니 明白히이것은當年標識으로만들어두엇든것인데大角峰의예이르러中間의溝形이忽然合아첫스니土岸이對立하야門과가티되엇다는것은이名이豆滿江上流의여러갈래를이쳐되엇다는것은이늦가르친남것이 紅土山水源과의거리가얼마인데漫坡가濃隔하야 相距가四五十里나된다 土門江上下形便으로말하면碑東에잇는 乾川이東으로百餘里를비처어비로소물이나는데東北으로흘르고 곧러서 松花江으로흘러갓다 松花江은即黑龍江上源의 一派이라吉林寧古塔等地가다其中에잇다 中國派員은말하기를 朝鮮과의境界가 根本圖們江으로되엇고 總署禮部의奏議에도또한 圖們江邊의界碑의 東流를보건데 이는 松花江上流이라 『東爲土門이란』는뜻과 맛지안한다하여疑難하는말을만히하엿다 臣은말하기를이下流가비록松花江으로들어갓슬지라도 經限한碑와石堆가이미저와갓고 土門의形便이또이와가트니 도모지豆滿江上流에 接하지아니하엿다 그런즉우리나라사람은오즉土門이 一毫도欺騙이업는故로苦口力下한속. 그는專혀圖們江으로써 水源을定하고境界를定하려하며 臣은오즉碑堆의境界로써 證據를삼아서로京勘의生기고彼此가矛盾이되오므로別로繪本을움이어도라와朝廷에稟할뜻으로十餘日만에商議가 決定되여비로소草本이되어 照會公閱한然後에다시 正本을벗기어(中略)詳細히究本을 만드니(中略)紅溯水形便은相距하기가 七十五里이오 西豆水는立碑處에서는南北으로相距가一百三十里이요 吉州를地方으로 南北相距가四五百里나되니 碑文에잇는 『東爲土門』과는 懸殊하야一一히卞論하고 다곳곳이指證하야足히論하야足히 界와江源이 中國派員은碑... 안는다하야 終乃疑心을품지 못하고 數朔을 相持하엿스나 마츰내指定할道理가업는故로各各碑文을一벌과 圖繪한벌씩가지고 照會를行하고十一月三十日에 會寧府로부터彼此歸還하엿다(下略)고하엿섯다

袁世凱抗議 李重夏痛罵

이乙酉年의勘會로是非는判斷되엇스나 徹頭한當時朝鮮으로는여러가지糾關이잇섯다 그때에는京城에袁世凱가와서 統理衙門을세우고 朝鮮의諸政을干涉하든터이라 한번은外衙門이무르게와잇는 統理衙門이라 한것은그미테被壓하는 統理國이라그勝判이如而 되지못할것은明白하엿다 李重夏가이러케苦心慘憺하든翌年丁亥에 袁世凱는『朝鮮은土門江 豆滿江이同一한江이아니라』는데、을籍하야領土를擴張하려하는者이라고 指摘하고다시勘界談判을開始하기를提議하엿다 이에朝鮮政府는明年에다시覆勘하기爲하야 前勘界使李重夏를派遣할準으로하야 定하기로回答하엿다 이리하야朝鮮開國四百九十六年(光緒十三年)丁亥春에 李重夏는다시會寧에서 淸國公員과會合하게되엇다 淸國委員은兵威를大振하야 孤單한朝鮮委員을威脅하려하엿다 淸國委員一行은 長官以下兵卒外지四十餘名인데 朝鮮側은 四名에不過하엿다 彼等은李重夏를다리고紅丹水로가서 그附近으로서境界를定하고자 各樣 脅迫을하엿스나 威武를무서워아니하는李重夏는毅然히

兵威로威脅 終乃未決定

『吾頭는可斷이언정 國疆은不可縮이라』하야크게東國男兒의意氣를보이엇다 當時袁世凱의一令之下에 是從하는朝鮮政府의派員으로그의이만큼이나마 어려운것인지推解할수잇슬것이다 그때의勘界談草其他의 記錄을보면彼等은 彼等獨有한漢民族의優越感을가지고 記錄文書도自國의것이아니면 一切採用치아니하고 屢屢李重夏를兵力으로威脅하엿스며 實地踏圖에從事하는朝鮮人池昌翰이 淸國側意見대로하지안는다고 毆打까지한일이잇스며 朝夕으로生命이危殆한脅威中에서 數朔을몸며차호던그때朝鮮側委員의 孤單한情境은實로 孤苦艱難하엿다 너무勝判이오래되니外 朝鮮側사람들은 彼側委員德玉이阿片먹고자는中에 그寢門에潛入하야 彼國의態度를搜探하는等苦心慘憺하엿스나 畢竟談判은不成立되고淸國委員이가지고온十五個의 石碑는紅丹水附近에遺棄하고도라갓다 吉林通志에所謂石碑十個에 華夏金湯固 山河帶礪長 의文字를各碑面에 한字씩식이어세웟다는것은 誤記이나

過去一年間의 運動競技界 (五)

李源容

籠排球篇

中央青年會主催 籠球리ー그

朝鮮籠球界年中行事의一大壯擧인中央青年會主催(中外日報後援)第四回籠球聯盟戰은 十一月六日부터開幕하야 月餘동안을두고 中學部에는 普成高普 徽文高普、協成實業 中東學校青年學校 普成商業、南大門商業 第二高普 徽新學校京城師範學校와 青年團에는延專 百合 사울 籠球團 青年俱 全徽文 中央俱 一高俱樂 團俱 三角俱樂部等九팀이 戰鬪를繼續하엿다

中學團優勝 協成實業

同聯盟戰中學團對抗은 十一月六日 徽新對徽文戰을『스코어』로최後의協實對徽文戰에이르기까지四十五回의 對戰을 거듭한結果協成實業이九勝十敗의 最高率로써優勝하엿다 參加各팀의『스코어』는아래와갓다

○徽新19—12徽文×
○二高23—22中東×
○青學22—18南商×
○普高25—16京師×
○徽文24—16二高×
○協實16—14普商×
○徽新31—17中東×
○普高25—12南商×
○京師28—16青學×
○協實33—20京師×
○徽新46—32普商×
○南商25—20二高×
○中東11—10青學×
○協實27—16普高×
○京師20—16普商×
○徽文21—16中東×
○徽新41—20南商×
○青學18—15二高×
○普高28—14普商×
○京師22—15徽文×
○普商27—10南商×
○二高30—18普高×
○中東44—19京師×
○協實44—23南商×
○普商26—10青學×
○徽文27—17南商×
○徽新36—25青學×
○京師38—11二高×
○協實18—17中東×
○徽文36—20普高×
○普商29—15二高×
○中東32—16南商×
○京師23—22徽新×
○協實38—18青學×
○普成21—12徽新×
○徽文20—19普商×
○中東26—15普高×
○南商22—20京師×
○協實28—21二高×
○徽文37—19青學×
○協實28—15徽新×
○二高36—15徽新×
○普高25—20青學×
○中東40—13普商×
○協實20—18徽文×

青年團優勝은 延禧專門

同青年團對戰은百合對中俱로써開始하야 延專 百合 青俱三팀이 八戰七勝一負八割七分五厘의同率로써 延長戰을擧行하야 延專은十戰ㆍ勝一負九割의最高率로써 覇者의榮譽를獲得하엿다 그經過는다음과갓다

○百合23—15中俱×
○延專37—16사울×
○青友41—26一友×
○三角37—12全徽×
○百合37—16擧俱×
○中俱25—19사울×
○延專39—18青俱×
○一友45—11全徽×
○擧俱27—24三角×
○一友14—11사울×
○青俱36—24中俱×
○사울23—16三角×
○一友[illegible]—15擧俱×
○百合20—16全徽×
○延專43—12中俱×
○青俱38—20사울×
○三角22—21一友×
○擧俱33—18全徽×
○百合23—21사울×
○一友19—14中俱×
○延專36—17三角×
○사울30—27全徽×
○青俱53—34擧俱×
○百合22—16一友×
○三角16—15中俱×
○延專39—16全徽×
○사울44—29擧俱×
○青俱35—24三角×
○中俱35—17擧俱×
○百合33—9三角×
○延專38—16一友×
○青俱68—15全徽×
○青俱26—21百合×
○延專45—7擧俱×
○百合18—12延專×

【延長戰】

○延專51—28青俱×
○青俱30—29百合×
○延專28—25百合×

上記한成績으로써中學部에는協實과 青年部에는延專이各其優勝하엿스며 競技開催日에는每土曜外로 青年會對參加各팀의對抗試合이잇섯스나 모다青年會가 得勝을 한바 本리ー그戰으로써終幕하드니 籠球界로그幕을닷첫다

日本無產運動의發展

無產黨合同問題의展望 (三)

◇東京 李貞根

『우리의 第一步는無產階級의目標를定하는데잇섯다 우리들은이것을定하엿다』『徹底하고銳化되엇다......그래서 우리의第二步에잇서서는 이目標와思想의우에서면서 大衆을옥죽이지안이면안이된다 그리하야大衆을動케하는唯一한길은 우리들의當面運動이大衆의要求에마처야된다......이러케되면 우리들은이것도안이요 저것도안이다 하는消極的 迴避的、懷疑的、虛無主義的態度를버리고 그積極的××的、實踐的、이도되지안어서는안된다』『資本家階級의政治能力이經濟上支配를고綜合안것처럼 勞働者와農民의××을爲한××은部分部分으로보면 經濟ㆍ鬪爭이지만은이것을綜合한것은 政治鬪爭이다 勞働者가賃銀一割增加를爲하야鬪爭하고 農民이小作料二割輕減을要求하는鬪爭은 經濟上鬪爭이다 그러나이經濟的鬪爭의××目的——(中略)××——는政治的目的이다 無產階級의××은 이것을 部分部分으로보면은 經濟的 鬪爭이요이것을綜合하여 보면은 政治鬪爭에 지나지못한다』(大正十一年前衛ㆍ八月號에서)이 方向轉換論은 半年에넘도록激烈한討論을繼續하다가 結局無產政黨樹立을促進식혓다 大正十三年九月에 未曾有의關東大震災가이러낫다 이때社會主義者의行動에對하야만은流言飛語가떠돌앗다 一般의人心이不安한때 龜戶에서는(中略)이것이後에問題된龜戶事件이다 또震災當時帝都警備의任에當하엿든 憲兵大尉甘粕正彥이가 無政府主義者大杉榮과그妻伊藤野枝及橘宗一을絞殺하엿스니 이것이有名한甘粕事件이다 이와가치露骨的××의右翼小兒病的發露로無產階級의牙城을 肉迫함에社會主義者의反感은더욱頑强하여졋다 이때 無政府主義者 朝鮮人朴烈은『不逞社』를組織하야獄烈한活動을開始하엿는데이것이맛춤내××事件을나아노코야말엇스니이것이世稱朴烈事件이다 朴烈이投獄後에 金子文子(朴烈의內緣의妻)와의怪寫眞問題와優遇問題로日本政界에큰波紋을일으켜結局若槻內閣에致命傷을주게되엿다 大正十二年十二月에島中雄三、青野季吉、高畠素之、赤松克磨等의努力으로勞働同盟、關東機械工組合、出版從業員組合 農民組合 社會思想社 種蒔社 農民運動社 文化學會等의有志二十七名이參集하야第一回勞働會를開催한後在六次나會合을거듭하야 同十三年四月에는無產政黨組織準備를目的한全國團體를組織하기로하얏다 大正十三年六月二十八日에芝協調會館에서政治研究會發會式을擧하나 이政治研究會의目的은이러다「無產階級의立場으로政治、外交、財政、經濟、產業、勞働、社會等諸問題를調査研究하고이것으로써其××을確定하고 大衆의政治的組織、促進하고 日本社會의合理的改造를期함」이政治研究會의 最盛時代에는 全國에支部五十三 會員六千을 算하엿는데 同會自體는決코無產政黨의組織이아니고 다만無產政黨組織促進을目的으로하는啓蒙이니만콤 그活動도大衆政治敎育運動을主로하엿다 大正十三年에黑木和夫가獨逸留學을마치고 歸國即時로獨逸語直譯的論法과新造語를滿載한有窜으로 『吾國マルクス主義の文產者的立場止揚』의題目으로長論文을「マルクス主義」에發表하야 福田、河上、兩博士의「맑스」學說을批判함으로부터山川均과의 論議이開始되엇다 大正十三年秋에 政治研究會의構成團體의한아인勞働總同盟은總同盟關東同盟大會에서 左右翼의衝突로左翼組合代議員退場問題가 이러나杉浦等數名이關東同盟에서退名되고 總同盟內에는更히關東地方評議會를組織하게되엇다 이것은勿論現實의名目下에階級協調에로나아가려는 總同盟幹部派와現實的鬪爭에依하야 大衆을高度의意識에로向上식히려는左派와對立의表現이다 이에全國的으로左右가對立됨에 評議會는左翼組合으로形成되다 評議會의形成과同時에左翼의全勢力은評議會에集中되엿다 即評議會의指導分子에依하야左翼指導勢力이漸次로形成되여서이엇다 이때에는亡命中에잇든荒畑、佐野、의歸國으로左翼指導勢力形成問題가擡頭하엿스나 有力한것은形成되지못하엿다 이때에震災後校內運動에沒頭하엿든 學生社會科學聯合會가校外에進出하야評議會의活動에參加하얏다 이와가티左翼運動은佐野、野坂、德田、荒畑、北原等과評議會杉浦渡邊、鍋山、等을中心으로하고其他在來의鬪士及學生思想家를그援護部隊로하고또『無產者新聞』을言論機關으로하야評議會를大衆組織으로하야對立鬪爭으로自身을굿게結晶하고

謹賀新年

驪州

京畿道驪州邑內 公醫 俞興鎭醫院

驪州邑內市場通 驪州旅館 電話十五番

驪州邑內 朝鮮料理 吉興館主 金吉鉉 藝妓一同

驪州郡邑內 綿布布木及婚禮具 崔基鍊商店 電話二四番

驪州郡邑內 驪州釀造組合

驪州郡廳職員一同

驪州郡農會職員一同

驪州郡森林保護組合 職員一同

驪州郡畜產同業組合 職員一同

驪州警察署

京畿道驪州邑內 京城長湖院行 驪州自動車部 停留所 京城鍾路パコダ公園前 電話驪州二六番 電話光化門一四九七番

京畿道驪州邑內市場通 內外金物 總ゴム靴 共信商會 主 [illegible] 電話驪州一五番

驪州邑內倉里 時計眼鏡、蓄音機、林成堂商店主 林[illegible]

驪州邑內 藥種貿易商 和昌堂藥房

驪州邑內 金海石

驪州邑內弘門里 司法代書人 李弼奎 電話驪州三五番

驪州邑內弘門里五八番地 光興商店 主 方永錫

咸平

鶴橋面 協議員 權晶淵

咸平 柳昌基

古幕院 殖松 米太郎

咸平郡咸平面 職員一同

咸平農蠶實修學校 職員一同

咸平酒造組合

鶴橋面職員一同

實業會社鶴橋農場 時村政車

咸平邑內濟生醫院 院長 李化善

咸平邑內廣濟醫院 院長 朴辰永

咸平 李載嫌

咸平 李載昇

咸平 牟玄祺

咸平羅山醫院 院長 崔昌東

食和面 職員一同

羅山普通學校 職員一同

咸平郡海保面 金九會

海保面 職員一同

平陵面 職員一同

羅山 松本彌太郎

海保普通學校 職員一同

月也面 東珪

月也普通學校 職員一同

咸平郡廳前 司法代書 張炅鉉

咸平 羅[illegible]完一

月也面職員一同

咸平郡廳 職員一同

大洞面 職員一同

咸平郡酒造組合

大洞面鄉校里 孫良楨

咸平殖產會社

咸平 申鉉麒

咸平郡廳前 代書 張鳳璇

[illegible] 職員一同

嚴多面 職員一同

新光面 職員一同

桂川普通學校 職員一同

大洞面 李[illegible]漢

咸平郡 官員 金東昕

東萊

東萊邑內 大衆醫院 院長 白武 丁信敬 水營分院 金茂洙 北面分院 洪鍾洙

東萊鐵馬 吳泰煥

東萊邑內 東萊齒科醫院 院長 姜興淑

東萊西門通 李聖五入齒院

東萊梵魚寺布敎室 東萊幼稚園

東萊面協議員 林炳弘

東萊邑內 慶南精米所 主任 白字煥

東萊邑內 中央タクシー 電話一〇五番

東萊邑內 土木請負業 成光德

東萊市場通 東萊洋靴店 實費製靴部

東萊邑內 東萊券番

東萊溫泉場 金泉館

東萊西門通 東萊自轉車店 李在鳳

東萊南門通 大衆洋靴店 朴仁錫

東萊西門通 內科外科 東萊醫院 長 白富興

東萊邑內 大東醫院長 醫學博士 韓興敎 電話六八番

東萊梵魚寺

東萊南門 大同精米所 尹三東

東萊邑內 魂成[illegible]

東萊郡機張面大邊港 料理屋 海東館

東萊郡機張面大邊港 大邊酒造場 金洙鳳

東萊郡機張面大邊港 料理屋 花月樓

東萊郡機張面大邊港 永樂亭 蔦谷ナカ

東萊郡機張邑 機張漁業組合長 崔[illegible] 理事 張鳳述

東萊郡長安面 佐川金融組合 姜信甲

東萊郡機張邑內 東萊館 張斗玉

東萊酒造組合長 黃璘性

東萊郡日光面 三聖酒造場 金洪福

機張面石山里 金彩奎

機張邑內 吳炯根

機張面侍郞里 酒造場 辛珪容

東萊郡鼎冠面 安珉浩

慶南道評議員 金化壽

東萊郡長安面佐川里 東光商會

東萊郡日光面伊川里 崔翔甲

東萊郡日光面多栢里 崔鉉穆

東萊郡鐵馬面長 鄭軫謨

東萊郡鐵馬面栢吉里 金德洪

東萊郡長安面 崔翔大

東萊郡機張面校亭里 盧載浩

金泉高普設計 雙方妥協要望

학급설치문제에 受任者와後援會서

【金泉】 경북김천(慶北金泉)에고등보통학교를설립하기로총독부 당국에서도 그인가를허락해주기로 내정되엿슴은 전사으로 허가하기는 지금 고등보통학교편을 개정중이니 이것을정식으로 세간에 발표한후에해줄터이니 명춘에 개교하도록계획준비나다하라는 당국언명 및권유도잇섯다함은 이미 보도되엿거니와 원래수입자측의 복안은명춘에 일학년 이학년두학급을설치하려고 하엿스나 당국으로부터 잘못학교가 승격이되는경우에는 학년을증가할수 업지만은 사립학교로써 규정상 또는학교편성으로 보아서 초년에이학년까지는 허가하지 아니할리세가 농후하다는바이 켜수입자켜씨측에서는 이러면서지 허가안되면 학년일에 학급증가를 하는이보담 처음부터 일학년을 이학급으로증가할 외학이라는데 학급을증가할에는 그증가에 요하는기본지금약 우부십만원이 필요하다하야 샤금 특방으로주선중이라고한다

地方情勢다라 學級增設을懇望

당국보도한바와 가티 김천고보교가명춘에개교하도록인가될것만은 최연면사실이나 해교가실현된후 경영상막대한 영향을줄 우회 학급증가의문제가 암해가로노히잇서수입자켜씨 들은배방으로 이대책을 강구하고잇든바 지금엇러한 리지가나서서학급증가에 요하는기본금 십만원이라는것을 부담하지안는 한에는 매우난경에 처하여잇다는비 이미해교를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원조촉진할목적으로 조직된후원회(後援會)로 현재수백명의 회원을포용하고 잇슬뿐아니라 모든의연금도 다외일원아니라 귀부모집원도 당국에제출하고잇는터 이능중더할동을 할것가튼면 가능할것 이라고하야 근간에수입자측과 후원회측에서 련합회의를개최하고 원만한타협이잇기를 일반이사는 요망한다하며 만일후원회측에서 용감하게도 이끈중한목편을 라개한다고 하더래도 몃개인으로는 함수업는터인즉 후원회리사 또는후원회 권체명의로하면원만한해결를 볼것이라고한다

學級增設해도 經費더안들어

수입자측에서 처음예산에 편성하기는 각학년을 일학급으로 측으하면서지 오학급으로 예산에 편입하엿든바 학급이일학급식증가되기로 말하면 오학년오학급이 배증되어 십학급될것으로생도들도 물론배가 증가될것이나 그반면으로 선생은당분간이학급이 된다고 하더래도 더증원하지안어도 된다고 하야 즉환언하면 생도는배나 증가되더래도 선생은일학급에 사용될인원수를 가지고 충당할수잇다고하야경제상으로보아서도학급증가가만흔편계가된다고한다

物價減下及 家賃減下運動

일반시민의커대중에 群山群友會主催로

【群山】 군산군우회(群友會)에서는 오는의당면문제인 물가감(物價減下)급 가임감가(家賃減下)운동을적극적으로 이르키기위하야 오는일월육일(시간장소미정)에 민사대회를개최하고 대책을토의 하리라는데 일반시민들은 그에대하야만흔기대를 가지고잇다한다

群中學生入學問題도討議

【群山】 군산청우회(群友會)에서는당면문제로 신학기(新學期)를압두고 군산중학교(群山中學校)조선인아동입학난(入學難)문제에대하야서도 대책을강구하 하리라한다

三團體代表에 정상부장사과

【明川】 함북명천군하고하평 주재소정상(井上)부장의사건에 대하야는 이미 보도된바와갓거니와 그곳명청하고 지부집행위원장김홍서(明青下古支部執行委員長金洪瑞)씨는명천군내의각사회단체에다가 그사실을조사보고하엿다는데 지난십이월이십구일에 그곳지부 신간특파 현은암 청맹은특파 박승덕 양구룡 명성소년회는특파 유승철(新幹特派玄銀岩 青盟特派朴承德 楊九龍 明成少年會特派劉承喆)제씨는 가정상부장의 사건을 조사하기위하야 정상부장을만나서 그사실내용을 물엇든바 그부장은모든사실을 부인함으로 그곳청맹지부사무소에 모혀 대책을강구하고잇섯는데 그곳 지부위원장김홍서씨의말이 이곳 유력자최모가 피해자현동욱씨를 보내여나를 만나자기로 가서만난즉 그는나에게말하되 정상부장의 사건을화평해결하기를 바란다고 함으로 나는돌으겟다고하면서 본부동맹에 보고하겟다한일이 잇섯다고하니 모혀든특파들은 그러면 최모를만날것이라하야 그 물정하야 물을속여시 그런사실이 잇섯다하면서 필수잇는대로 량해하고 마는것이엇든가 함으로 그들을말하기를 그러나그 부장이 그사실을 사과한다면그만두지만 그럿치아니하면 우리는 내중의압해 폭로치아니하겟다고 하니써 최모의말이 그러면내가 되도록 중재하여보겟다고 하엿는데 이욕고정상부장은 최모의 집에서만나게되자정상부장은 최 업슴으로 특파여러사람은 부장회질문하기로 작정하고 잇는지 퇴곰국 사과하는말이 내가천자 가 여러분압해사과하오니 다시 여한행실은 모든것이 잘못이옵 사회의 여론까지라도 일으키지 말아달라 하엿다는데 신간특파 현은암씨는 다시말하되 우리는 이자리에서 용서하자만은 우리 토의이로 수업고 본부에보고 하엿다고한다

三陟郡下長面에 傷害致死事件

【解剖한結果病死로判明】 被疑者卽時釋放

【三陟】 강릉군구정면여찬리 정명회(江陵郡邱井面余贊里鄭明會)는 삼척군하장면도전리최명규(三陟郡下長面道田里崔明圭)와사소한 말다툼으로서로쌈을두세번식 버린일이 잇섯는데 권긔최호규(崔鎬圭)는 그후병으로 신음하다가 죽엇다는데 최씨의유족들은 정명회(鄭明會)와 가상해치사(傷害致死)케 하엿다는혐의로고소하야 수일전삼척경찰서(三陟署)에 구금되여 취조중이든바 지나이십팔일 북삼주재소(北三駐在所)로 사체를 이송(移送)하야 강릉지청검사 (江陵支廳石見檢事)와 청수사법주임(淸水司法主任)립회하에 암성의사(岩城醫師)가 사체를 해부한결과 사망한최호규는 여러해전부터 심장변막염(心臟瓣膜炎)이라는 중한병이드러 병사되엿승이 판명되야 피의자정명회는 즉시 석방되엿으며 피의자친족 정탁영(鄭卓永)은 부당진단(不當診斷)을 하엿다고산해의원(山海醫院)을 거러고소를한다고한다

密陽青盟主催로 社會運動者忘年會

경찰은맹원들을인치

【密陽】 지난십이월삼십일오후 밀시밀양서한공회당(密陽西閣公會堂)에서밀양사회운동자망년회를 밀양청년 동맹의발긔로 참가인원 남녀로소삼십여인으로대성황을 이루엇다는바 당일고등계주임 이하다수의 정사복 경관이련석 하야시사에관한 것과 사회운동에 관한것은일체금지하엿승으로 각지의 감상담 여흥 다과등으로 동십일시에폐회 하엿든바 폐회후맹원김희순(金熙淳)은즉석에서청맹원김희순(金熙淳)김남수(金南守)량군을밀양서에 이치하엿다가익일오전이시경에 량군은 무사히도라왓다고한다

陽德郡農民社 斡旋部組織

【陽德】 평남 양덕군 농민사(平南陽德郡農民社)에서는창립이래 사오년동안 숙제로되야오든일반산무를 설치코자 지난십이월삼십일오후구시에 각면리(各面里)농민사리사(理事)급여명이천도교당내에 집합하야 알선부를설치키로 결정한바 이래구삼을 수입하야 즉시시작하게되엿는데 일반사원에게 리익을만히주리라고 일각 이라도속히 실시되기를고대중이라는데 위원의씨명은아래와갓다고한다

斡旋部長 郭明郁 事務理事 金永錫 同李興鎬

婦女자는방에 巡查侵入한事件

청맹에서조사

【明川】 함북명천군하고면상평주재소(咸北明川郡下古面上坪駐在所)정상부장(井上部長)은 지난십이월이십일밤 열시에 리보(李某)란 순사를 다리고그동리에사는 현동욱 박중삼정봉호(玄東旭朴重參鄭鳳浩)의 집녀에도 멧사람의집에 남의녀자가 혼자사고잇는 방중에 들어간일이잇다는데 그사실내용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권긔현동욱씨의 처림천녀(林姓女)는 스물아홉살되는 부인이그남편이 확대장으로 가서도라오지아니 일곱살되는 아팔을다리고 혼자자는데 리순사를 다리고와서 정상부장의말이 들어오라는가 말나는가 함으로그녀자는대답하기를그것은법가진니가일시나는몰은다하니리순사를밧게세워두고뛰여들어오니그녀자는겁이나서밧그로 나가니리순사가하는말이 아모도 업스니들어가서숨으시오하기로 들어가서문을다다걸고 몸을숨고 섯난대 다시와서 문을 드러닥치고문을 벗기랴함으로 겁이나서 만삭태모(滿朔胎母)로 자는아들을 업고동네박중삼이란 친척의 집에가서 방을새우고 몃칠만에 해산(解産)하엿든바 어린애는 멧시를지나서 죽엇다고 하며 박중삼의 집에가서엿시밧 켕가지로 나의집에 뛰여들어가서 주인대과 그집일꾼과어떠한생이는것을 일으켜가지고 주인을 차즈니 주인노인은 방에서나오자 부장이 그노인의수염을 쥐여닥쳐 안치고 주재소로다니면서 열인화라고 뇌미안는발을하고간 사실과 정봉호의집에가서도 권긔와가튼 행동을함으로 그집주인의처는 겁이나서 뒷그로 다라나가다가 발을상한일이잇섯다고하며권긔현동욱씨가 화내서도라오니 그의처가사실을 말하매 주재소로간즉부장이 뭇는말이 동내김국경의집에서 언제개를 먹은일이 잇는가하니 잇다고한즉 이곳중국연이 몃달전에 개를일본이 잇섯조사하려고차젓다하나 현동욱씨는 말하기를 권일나도업는데나와집으로 두번이나 간것이그래서잇든가하니 그래서 갓다고하며 그는불순한말로 그래나를꺾도적으로 아는가할수 조금도감정스럽게 생각지 말어달나고한사실이잇스후 다시 부장이드러오라하기로 돌어간즉 자긔기관야에들어가데리하야권말서나시밥서를 하여달라고 하니가그자리에서 현씨의말이 당신한행동에 내가 웬그런건영을옷겟쇠 주라하야 쏘주시 안엇든데 그러면 자기처에게가서 쏘쏘밧을터이니 가티 가자함으로할수업시 다리고갓든바 현동욱씨커 팀씨를 밟시키면서 자긔등이리쓰고 도장가지 바다가고 달은피해자의집에가서도 칭칭을 밧고도장까지 밧어간 사실이잇는데그곳청맹과 지부위원장김홍서(青盟下古支部委員長金洪瑞)씨가 피해자의 집으로 다니면서조사한후 정상부장을 차저그사실의 유무를 물은즉 처음은 대면하기를 부인하다가 본인들을 대면시켜도 납다고 하겟든가부으로 그때에야잇섯다고 자백함으로 정봉호의처가 그날밤에 발을상하엿스니치료비를 주어야 될것이아닌가하매자는그런사실은지금일여주니 알엇습니다 하면서그렁타면 주켓습니다하고 김홍서씨그와가티 충고하야주심은 대단감사히 생각한다고한 사실까지 잇섯다는바 김홍서씨는이사건을각사회단체에다가 보고하엿다고하는데 이사건은 개인의사건이 안인것만큼 그사회단체나 일반민중들은 엇더한처치를하는지주목한다고한다

明太船顚覆 漁夫三名溺死

서청항방파정안해서

【新昌】지난 이일밤 열한시반경에 함남 신창항 장신동(新昌) 서소유 어선이발동 공사중방파정(防波堤)앞 삼대도 지점에서 급격히돌여치는노도(怒濤)에명태를만재한그대로 전복되엿는데당지어조원(漁組員)의 선원소방중 사명구주케 하엿스나 일명는자괴심에 들어가서 참명되고 그남어지이명은 아즉도 시체를 발견하지못 하엿다는데 익사자의 주소와씨명는 다음과 갓다고한다

◇溺死者의住所氏名
住所 北青郡新昌里三區 原籍同上 金正福(四十)
住所 北青郡新昌里三區 原籍同上 韓太燮(三五)
住所 北青郡新昌里 原籍末詳 李宗煥(二〇)

杜陵夜學館 火災

발화원인은 방금조사중

【平澤】 지난이일오후열한시 오산분경에 경긔도 진위군고덕면두릉리(京畿道振威郡古德面杜陵里)무산동민이동야학회관에는 화재로 하야 일대소동이 일어낫섯다는데 이제 그자세한 바를들으면 불이 처음이러난곳을보아 괴상타고하야 발화한 곳은 두곳인데 한곳은 『나무간』이요 또한곳은 나무간에서솔을 하나를 격하야 두간이나떠러저 잇는 마루우이라고하는데 그마루우에는 그날오후 세시쯤에동회에서가마니(叺)를치고남은집(藁草)를한못가량노아누엇섯고 바로 그엽헤는 가마니를싸아두엇섯는데 탄것을 보면 처음에꼭 초에 불이붓터서 가마니로가마니에서 천정으로붓터 연목파치 목이탓다하며 나무간에서는 봉쇄한 대문엽헤에서 발화하야 적정으로 불이붓헛다는데 봉쇄한집안에 두곳에서나 불이이러난것을보아 일반은심히의심(疑心)이난다고하며 발화된시간은 동야학회선생김씨의말에의하면 이날오후열시십오분에하학을하고 헤여젓는데 불이안으로부터 은듯하게무러서 천정까지 타것을보아 발화된시간이 오랜것가튼데 아마도 하학후이삼십분내로 발화된듯십다고 하는데 동야학생도는 물론이오 권동민남녀로소가 일제히 총출동하야 오월오전두시 이십분에야 겨우진화되엿다는데 화재당한간수는다섯간 데그중두간만은전소되엿는데손해액은약육십원에 달한다 고한다 그런데진화후에즉시주위를살펴본즉사람이동행하지안는집 뒤지면으로부터 약사척(四尺)가량이나되는 조고마한롭창문으로 안에서 나간사람의 발자취가잇고 거긔에서 뒨자취와는 분명히잇는데 이것을 보아 어떤악한의행동는 사람의소행이라고 추측한다는데 야학화가생긴이후로 근처에도박을 금지하얏는데 혹은노박배의 소행이아닌가하야 일반은 의아하는데 이급보를듣는 소관평택경찰관서정리주재소에서는현장에 출장하야 조사를하얏는데 화원(火源)이 괴상하니만치이사건의 전개여하를일반은 주목한다고 한다

新年宴會席에서 醉中短刀로刺傷

지난삼일신년벽두에 遮湖久保田旅館에서

【遮湖】 지난삼일밤남창호주 보건려관(咸南遮湖久保田旅館)에서는 다수한일본 사람들이모혀신년연회(新年宴會)를열고노든중하촌모(下村某)가취중에단도를 가지고 차호우선회사(遮湖郵船會社)에서긔로잇는길송광(吉松光)(룬)의우편복부를약한치가량찔러현장에는선혈이만흘너 졸도되여 그들의연석은 마춤수라장으로 화하야 무박아지다수한 구경군들이 모혀들어 일시혼잡을 이루든중 가해자인 하촌모는 즉시경찰에 인치되여 구금되엿다는데 이케그 자세한 내용을 들은바에의하면 하촌모는원래반목을 두든시웃헤술이만 취하야 말다툼이이러나서 서로 파바톡을 하든중 옥신각신 하든중싸홈이 이러나게되매 모혀든사람들이 서로써 여말이든바 하촌모가 손에단도를들엇승으로 것헤잇든 권긔길송광이가 싸홈을 케지 식히고저 뒤도부터 달녀들어 하촌모의두팔을붓들려 안엇든바 몰연손에쥐여든단도로 찔러졸도케 하엿다는데 이연회석에 참석하엿든 차호수재소 수석순사경부보(則皮警部補)가 달녀들어유도로엿굴드려노인후 단도를 빼아섯다하며 하촌모는 원래술을 마시면신경이비 잡한 사람이라는데 피해자는바름 차호의원에 입원치료중이라는데 완치되려면 이주간이나걸이겟다고한다

新年勞頭에 日人縊首自殺

정신의이상으로

【安東】 신년도 소주의하이 도도한 신년벽두경북안동(慶北安東)읍에서는 원적을광도좌백군초진성용백이번지 (廣島佐伯郡草津町)에두고일정한 주소도 업시 대목(大木)으로 도라다니는송고정(松古定)(룬)이란일본사람이 결항자살하엿다는데 이처그자세한 내용을 드건대 송고정은 작년이월경 안동읍에잇는 적뢰(赤瀨)의장녀 시스고(シズ子)(二五)와 결혼한후이래동거하여오든바 월래성질이 좃치못한으로 월여전그처가에서 축출을하엿다는데 이혼말미아마 정신에이상이생기여 분세상을 비관하고 지내든중 지난이일오전두시경안동면신세동(安東面新世洞)심상소학교운동에잇는 로구목구에다 자긔의 허리끈으로 목을매고 죽은것을 그날오전십시경에야 발견하고 즉시소관경찰서에알이엿는데 그는 안동경찰서장과 자긔부모에 보내는유서를써 노앗다한다

端川青少盟 年齡制限變更

삼십일일에결의

【端川】 단천청소맹(端川青少盟)에서는 지난삼십일일에련령제한을 변개하여 발표하엿는데 청맹은 二七세를二五세로 인하하고 소맹은 一九세를 一八세로 인하하엿는데 각각 변경조파자가이백여명에달한다고

吉軒義塾曙光

일반동정으로

【大田】 충남대전군긔성면평촌리(忠南大田郡杞城面坪村里)에잇는길헌의숙(吉軒義塾)은창립된지 팔년이래로 수백명의인재를배엿스며 적지안흔 공헌을하얏다는바 불행이도 지난해륙월에권하를진동케하든대홍수로 교사전부가 떠나려가고말앗슴으로 권진한 아동들의 배울곳이 막연함을 유감으로생각한황재청(黃載性)씨외케씨의 열정으로도 군내각유지에게 의연금을 모집하는 한편 외케씨의경비분담으로 교사의신설과 학교의 확장으로 여학생을수용한다하며 경비는 전부황재청씨가 부담하얏다는바 이케부터는 학교의내용이 더욱충실하야갈터이라한다

楊州隱縣面에 棍棒強盜出現

현금이십원을강탈도주

【楊州】 래년보다 더한층어몽중한 년말경계를 안외에두고지난 삼십일오후열한시경에경긔도양주군은현면봉암리(楊州郡隱縣面鳳巖里)에서음식점영업하는 박모(朴某)의집에강도(强盜)한명이 침입하야 가졋든몽치로주인을 란타하고 현금이십원을강탈도주하얏다는데이급보를접한 소관양주경찰서(楊州署)에서는 삼륜(三輪)서장을비롯하야 류(柳)사법주임이하게원이총출하야정초(正初)임도불고하고범인수색에대활동중이나아즉까지체포치못하엿다고한다

生活難으로自殺

동래읍에서

【東萊】 동래군 동래면 교동(東萊郡東萊面校洞三五八)에잇는 위성화(魏成華)(四二)는 지난 삼일하오두시반(去三日下午二時半頃)경에 자긔집에서 『루마린』 십오그람을먹고 마시하는것을 즉시 그가족이발견하야 동래의원장백부흥(東萊醫院長白富興)씨의 응급수당을 바닷스나 권긔독약을 만히먹고또 시간이 삼십분이나 경과한관계상 동세시에 드듸어 절명하엿다는데 자살의 원인은생활난인듯하다한다

靈光郡內 疑問自殺

【靈光】 전남령광군홍농면상하리(全南靈光郡弘農面上下里)에서는 지난삼일 일에 박상진(朴相鎭)(三〇)은 게든자긔노는밤에서 노는데박상진처(朴相鎭妻)김성녀(金姓女)(二三)가 큰방에서놀에 건너방에서 이상한소리가들림으로 건너가보니 김성녀의남편 박상진의 목에는벌서 수건을걸고 피가흘러 방바닥은새빨가케본것 김성녀는 집안사람에게 곳알여가지고 법성포목의분원(法聖浦牧醫分院)에서 입원치료를 하엿스나 녕광읍내목의원入院治療하다는데 그내용을듯건대 아무리유업시 주머니칼로 식도를 썰려 그러케 위태한경우에빠젓다는데 아즉생명은보전하야다 한다

偽造貨發見

녕변에서

【寧邊】 평북녕변(平北寧邊)지방에는 위조화가 류행되여일반이 불안을늣기든중이데 지난삼십일일 동군북신현면 가좌동 류재칭(同郡北新峴面加佐洞柳在清)씨가 십전짜리위조화를발견하야 즉시소관경찰서에 고발하엿다는데 모형(貌形)은 십전짜리 명치사십사년(明治四十四年)주홀을 압하야붓친것으로 십전면(十錢面)이엿다고한다

大安川邊에 乞人이凍死

【永川】 영천군화산면장졋백이게변에서는지난일일오후구시쯤되어 삼십세 가량되어보이는 남자의시체가그린근사람의눈에 발견되엿는데 그날은갑작이일긔가 몹시추워지며 눈비가날이여 몸하나도 갈아입을곳이업는걸인은 넓은개변에서 갈바를알지 못하고헤메이다가드듸여안락한 죽음에길로가고말엇다한다

烏山朴富山同情

【烏山】 경부선오산역전(京釜線烏山驛前)에서 미곡상을경영하는박부산(朴富山)씨는 당지에잇는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水原青盟烏山支部)에서 경영하는오산노동야학이 간부케씨에 부단한노력과 일반유지에만흔 동정도잇섯스나 역시경비에 끈난이란말을 듯고 자진하야 지난이십팔일에 석탄반돈을 동야학에긔증하엿다고한다

●李鍾氏特志

【烏山】 오산시장(烏山市場)에서 어물상을 경영하며 각방면사회사업에 무진한동정을하는 리종(李鍾)씨는 지난이십오일에통리입은순(任順)이란 두살이먹은 로인이 어린손자들을 다리고갈곳이업서 방황하게된것을 알고 그들 가긍이생각하야 금일백원을동정하여 얼가족이 생활을유지식혓다고한다

消費節約에斷煙實行

【金浦】 김포군검단면불로리(金浦郡黔丹面不老里)일우인갈동민십삼호가일케히생활개선운동을 이르키여 가지고여러가지

大田藥令市開催

【大田】 대전약령시(大田藥令市)는 지난음십일월십오일부터 개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예정과가티 십오일에 개시하얏다는바 금년가튼 불황에도 불구하고 운집하야드러오는 래객들로 말미암아 대전약령시에는일대호경을일우엇다하며태산가티 쌋여노흔 약품은권에보지못한현상을 일우웟다고한다

利原에毒感

【利原】 겨울날이 옷피는봄날가티 따뜻하엿다가 갑작이 대설이 내리여 찬바람이불드니 함남리원지방(咸南利原地方)에는권염청을뛰이독한감긔가발생되여날로만연하여가는데 큰일에는 더개한집에 세명식은 환자(患者)가잇는듯하며더욱히로소(老少)들은걸어기만하면부한끈경에우려중에잇스며크게주의할필요가잇다고한다

眞池洞에火災

손해약륙천원

【眞池洞】 작사일오전세시경 평남선진지동(平南線眞池洞)의하물자동차영업 신성상회(新成商會)창고로부터 발화하야동창고권속와 하물자동차 일대를 전소하고 니여서 맹수가든불길은 그엽집리발소 현농문(玄能文)의집에당기여 딸간일동을권소하고 동칠시경에 진시소박조의활동으로 겨우진화 되엿는데 원인은 방금조사중이며 손해는 약륙천원가량이 되리라한다

消費節約宣傳

楚山俱樂部에서

【楚山】 초산청년구락부(楚山青年俱樂部)에서는신년벽두에새로운사업으로불경긔대책인 소비절약더선권을하엿든바 때마춤눈나리는것도불고하고처권지를시내에배부하는동시특별히초산이웨소에서는선전지를무료로 구락부에게공하엿다한다

生活難으로自殺

【咸興】 지난 십이월이십오일 번동이를며 함주군상조양면 상리(咸州郡上朝陽面上里)에사는최두원(崔斗元)(五〇)이란사람은 이선돌(魏汝機)후에서 섬짓든낫으로 자긔목을찔러 자살하엿다는데 이케그자세한을 알아보면 권긔 최두원이란사람은 그촌에서도 상당한농인으로 일일번동안이나 에써동사지은것이 쌀십미(米)니 여름사이에 열두가마 모(實小米)와 쌕포데갑셔 여지업시 앗기고 다닥처오는 부채로 방참자지 안코 애써서 삼울채 가지고도 로력량친(老齡兩親) 봉양과 어린쳐자(妻子)십여명(十餘名)식구의 호구(糊口)가 막연함으로 그와가티 자살한것이라는데 남어지 그집식구들의 애찰한 울음소리와 금후생활이 매우동정할점이만타한다

本報金泉支局 新聞配達調查

【金泉】 경북김천(慶北金泉)본보김천지국(本報金泉支局)에서는 최근에와서시외에 배달되는 신문이 매일발송하는 신문이 우편당국에 엄중히 조사하야 비밀리에 조사하리라는데 본보시외에독자씨중에서 신문아니온 것이잇거든 본보커에 어느날 분이 아니왓다는것을 지국으로

●楚山禁酒斷煙會革新

【楚山】 평북초산(楚山)읍내에서지금으로부터 약오년전에 창립되엿든금주단연(禁酒斷煙)회는지금에일으러서는 유야무야 상태에잇섯스나 새해를 바치하는동시 새활동을시작하려는유지들의발긔로써 금주단연혁신총회를 오는오일에할터이라는바이미보도한바와가티 적은지방에서 주초(酒草)비만은념우나과하다고각오하는 인사들은 현하 불경긔를생각하여서 이회에 만히신입하기를바란다한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四日京城測候所發表 大陸의高氣壓이發展하야北支那로부터滿洲北部에擴大되여日本南方海上의氣壓도高고中部以南에는昨日五미리乃至十미리의降雨가잇섯는데今朝에는모다恢復되여잇다北部는北風이强하고氣溫은昨朝보다五度內外가下降하엿다明日은天氣良好하리라

溫度 昨日最高 五、四 昨日最低 〇、〇三

運動競技

스포ー스戰線에 全世界總動員

올림픽目標삼어 各國의明年準備

『아미츄어―스포―쓰』의最高學觀殿堂인『올림피아―드』도一八九四年佛國『쿠벨타인』男의提案으로成立된지가 벌서 明年이면第十回를마지하게된다 一九三一年!이해는 全世界『스포―스』人鋼이 一年後의 닥처올 一九三二年의第十回國際올림피아―드를압두고 各種競技全戰線의準備로말미암어大動員을決行하는해이다

國際올림픽委員會는 一九二八年『암스테담』의 第九回올림피아―드의幕이 米國의優勝으로끗맛음을마으면서부터 바로次回大會의準備에着手하야왓다 대체本格的準備에드러서는主催國米國은勿論이어니와 旣催地『로스엔젤스』市는大大的宣傳으로『스태듸엄』의工事올림픽村의建設 各國에參加勸誘狀 全世界各出版物에宣傳ㅍ一스發表等의 準備에着手한것은昨年八月林ㄨ서開催한올림픽準備委員會後부터 始作하엿다第十回올림픽大會는 旣報한바와가티 明一九三二年七月三十日부터 八月十四日까지 十六日동안을두고米國 로스앤젤市競技場과及付屬各種競技場에서開催할터인바 多季競技는이보다몬저 明年二月初旬 米國紐育州『푸라싯드湖』에서擧行 할터이며『로스앤젤스』會場에서擧行할競技는 陸上競技 水上競技 『삭커―』『혹키―』拳鬪 『레슬링』 重量擧『펜싱』 漕艇 體操 自轉車競走『욧트』馬術 水球 射擊 近代五種競技 馬術等의十七種目外에올림픽美術展覽會를 大會프로그램에加入하기로되엿다 世界一을誇張하는『양키―스』의 하는일임으로 第十回올림피아―드에對한期待는格別하야準備委員長윌리암•가란드氏를 爲始하야『갈리포니아洲』知事『영』氏와 『로스앤젤스』市長포―터―氏의熱中하는新聞이몰리며 이外에후버―大統領과前大統領『하―딩』『쿨릿지』兩氏도本大會의有力한支持者로서援助하겟다는뜻을自進申出하엿다한즉따러서今年의

全米 스포―스熱은 모다明年『로스앤젤스』의올림픽에集中되여잇슬것은明白한事實이며歐洲各國도亦是今年度努力을올림픽의準備로돌릴것는바이다第十回大會에는 벌서二十七個國이申請을終了하엿다 하며 十一萬五千人을 收容할『로스앤젤스』의大『스태듸엄』은目下着着工事가進行하여不遠間에完成될터이라한다

青年會柔道部 冒寒鍊習

十日午前五時부터

中央基督敎靑年會柔道部에서는 年例에依하야 來十日부터三十一日까지每日午前五時부터 柔道冒寒鍊習을開始할터인바 地方에滯留中인部員들이모다一齊히參會하기를바란다한다

아이스•혹키― 大豫優勝

第一回 全國高等學校氷上競技大會『아이스•혹키―』準決勝은四日午前부터 續行한바 城大對東北帝大는六對零으로城大가이기고 松本高校對二高는二對零으로松本高校가得勝하야 決勝戰에城大와松本高校가對抗한結果六對二로城大豫科優勝하다

中學럭세

大每主催第十三回全國中等學校蹴球大會럭쎄戰은 前日『삭커―』에繼續하야 三日甲子園球場에서開催한바 參加八學校의入場式과 優勝旗返還式과 選手宣誓式이잇슨後 競技는開幕되엿다

天理18 神一中11

中國 四國代表神戶一中對大阪奈良代表天理中學戰은 三日午前十時三十五分부터 馬場主審下에開始한바 天理最初부터優勢로 前半에10―3 後半에 8―8 合計十八對十一로天理中學一勝하다

同志19 臺北8

臺北一中對同志社中은 午前十一時四十分 川本主審下에臺北先蹴으로開始한바 同志社는前半에11―3 後半에8―5合計十九對八로 同志社一勝하다

京師31 秋田6

京城師範對秋田工業戰은 午後零時五十分 小西主審下에 京師『킥•오프』로開始한바 京師는奮鬪猛烈하야 前半에10―3後半에21―3 合計三十一對六의大差로京師一勝하다

福岡14 名敎0

關東代表名敎中學對九州代表福岡中學戰은 午後二時 川本主審下에福中先蹴으로開始한바 福中은 前半에6―0後半에8―0合計十四對零으로大勝하다

스포―스王國은 아메리카

◇黃金의나라 米國에서도 一九三〇年은 未曾有의不景氣이엇슴에不拘하고 스포―스만은依然히 全盛을極하야 競技自體로보나 財政的으로보거나 一九三〇年은 스포―스의黃金時代로終是하엿다 ◇確實한調查에依하면 一九三〇年中에 米國人이 여러가지種類스포―스에消費한金額은四億弗의巨額에達하엿다한다 入場料와觀衆兩方面으로보와王座를차지한것은 勿論職業이지마는『메아쥐―•리―그』野球의人氣도熾烈하야 入場者合計가 一千八百萬人에達하야 旣往의『레코―드』를 完全히突破하엿다

범의어금니 (116)

苑洞人譯 點山生畫

절망 (六)

부릴락는 엑스!씨의 리보익괴사의 집에서열리 회합석상의 경시총감을 생각하야보앗다 아니 회합은 이미 시작되얏슬것이다 그리고 경관대는 안밧을 물새일틈업시경계하고잇슬것이다 이럿케 생각하야나간즉 그는 조금전에 『필호가 『에스피ㅣ어』진집중에 여덜채권으로부터 발견하얏다고 경시총감에게 내여보내든 글발을 생각지아니할수가 업섯든것이다 그리고 총감이 바더읽은 그글발은 확실히

―쪽발은 편지와는 관계업시 오권세시에 일어난다는것을 니저서는안된다―

는것이엿다

『그럿다!』

고 그는 감격하든말을생각하야가며 불으지젓다

『그럿타! 열흘마다 나타나는편지는 인케 세번 나타나고 넷째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얏다 그리고 오늘저녁은 그넷째번편지가 나타나는밤이다 그럿코보면 쪽발은 다섯째번편지와아울러 일어날것임으로 아즉도 날수로 아홉래가남엇다』

그는 다시 되풀리하얏다

『그럿타! 아홉래후 다섯째번편지와아울러 일어날것이다 그럿타! 아홉래후이다』

그러나 이와동시에 그는 별안간 몸을부르르떨엇다 크나큰공포가 또다시 그를엄습하얏든것이다

말하자면 번개가튼 환상이 그의머리속에 나붓기엿든것이다 그리고그것은 더욱이 넘어나현실적인 환상이엿든것이다

―쪽발이 일어나는것은확실히 오늘저녁이다!―

갑작이 모든진상을 깨닷게된그―평소의정신으로 돌아오게된그는 자긔의 이러한추정을 확실하다고미덧다 석장의편지만은 분명히 어두운밤가온데 비밀히 나타낫다 그러나 넷째번편지는 나타나지안코 지정한날자에 나타나야만 햇든것이다 그리고 그후에또다시 열흘째가 되지안는가? 말하자면 오늘저녁은 다섯째번편지가 나타날 차례인것이다 오즉 부릴락만이 주목할수잇슬만한리유가 여긔에잇는것이다 그럿타면… 그럿타면…이제 이문제외에 떠돌온것을 생각하고잇슬 여가업는것이다 아모도 단정할수업는 깁숙한수수꺽게 가온데부터……또는 지정한날자와나타나는 편지와의 착오가온데로부터 좀더자세한 진상을차저내이려고 초조하고잇슬때가 아닌것이다 다만 현재의정세를 말하고잇는 한말로써 족한것이다 그럿타!

……쪽발은 편지와는 관계업시 오권세시에 일어난다는것을 니저서는안된다……!

는 한말로써 족한것이다

그런데 쪽발은 오월이십오일로부터 이십륙일에 일으는 밤사히에 일어난다고 쓰여잇슨즉 오늘저녁……아니 래일 오권세시에 일어나는것이 틀림업는것이다

여긔까지 생각하고난그는별안간 소리를다하야구원을청하얏다

이제까발로 그는 주저치아니하얏든것이다 이제까지는 설령나갈녀야 나갈수업는 좁은굴속에 들어안저 손발하다를 움즉이지못할 형세에잇스면서도 그래도 엇더한괴적으로급미아마 스사로 구원되기를바랄만한용긔를 가젓섯다할지라도 이케일으러서는 모든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또는엇더한협박을 바더가면서라도 그여히 경시총감이나 위필호나마 수립경부나 그외 여러경관들의 신변에박도하는 크나큰재앙을 막지아니하면 안되겟다고 생각하얏든것이다

그는 또다시 고함을처서구원을 청하얏다

『서너시간만지나면 리보익괴사의집은 쪽발되는것이다

그는 이와가티 확실한 신념을가젓다 엇더한장해라도 헤아리지안코 불가사의한 그유령의편지가 나타나듯이 지정한시간에 쪽발이 일어나는것도 또한 움즉일수업는 확실성을 가진것이라고그는미덧다 커주로써 갑호려는 마의긔술가와 최후의희망은 이것인것이다 사실 래일오권세시만되면 리보익괴사의집에 남는것이라고는 아모것도 업게되는것이다

謹賀新年

金泉

金泉郡代項面 德田酒造場 李鳳秀

金泉黃金町一四八番 米穀雜貨 藥種肥料 有價證券 委託賣買 順興商店 主 張祥叔

金泉南山町 回生醫院 院長 金鏞 電話三〇〇番

金泉黃金町 李泰熙

金泉郡助馬面新旺洞 酒造所 李鳳現

金泉郡代項面香川洞 酒造所 李光烈

金泉警察署 職員一同

金泉基督敎靑年會 沈相玟 電話一六三番

金泉南山町 金泳熙

金泉本町一一七 乾材 雜貨 成德根

龍宮驛前 ㊎運送部 主任 金在淵

金泉錦町 鄭基東自轉車店

龍宮驛前 ㊆運送部

慶北線龍宮驛前 龍宮醫院 公醫 成潤弘

龍宮驛前 綢緞布木 和盛東

龍宮驛前 高田商會 龍宮出張所

龍宮驛前 綢緞布木商 源生祥 主 李景川

龍宮驛前 米穀商 尹德煥

龍宮業榮會長 罰捐代書人 三枝鉦三郞

龍宮郵便所長 龍宮學校組合管理者 片山彌一

龍宮消防組 組頭 岩本小太郞

金泉南南山町 司法代書人 朴彰錫

金泉旭町 金昌商會 主 金基洪

金泉大和町 司法代書人 安泳璣

京釜線金泉驛前 ㊂丸三運送店

金泉郡代項面香川洞 面協議員 金駿泰

金泉旭町 面協議員 趙熙甲

金泉黃金町 ㊍永昌精米所 主 呂永淑 [illegible]材

金泉旭町 海陸物産 委託賣買 三共商會 電話二五九番

金泉錦町三岩下 진여물감 金星洋行 金[illegible]鎬

龍宮面事務所 職員一同

龍宮驛警察官駐在所 部長 河野喜幸 水氣鼎 韓化福

金泉大和町 司法代書人 文東休

金泉旭町 陶砂器商 閔溶植本店 支店은本町에有함

金泉郡牙川驛前 精麵業 肥料商 金海俊

慶北金泉 生ソバ 御料理 大盛庵 電話一一九番

金泉面長 信田方

京釜線金泉旭町 綢緞布木 直輸入商 文昌瑞

金泉大和町 司法代書人 李漢琪 電話四三番

金泉城內町 生理學士 治療士 金泉理學療法 南鮮治療院 金泰勳

金泉郡果谷面 面長 呂舜東 外職員一同

金泉本町 和洋菓子及各種パン製造商 李熙蓮商店

金泉郡果谷面光明洞 呂煥道

金泉郡知禮面事務所 尹源直

金泉郡金陵面 面長 白樂敦

金泉郡代項面直指寺 住持 李炭翁

金泉城內町 司法代書人 權尙集 電話一五四番

金泉郡助馬面江曲洞 學校評議員 金致元

金泉本町 道評議員 伊藤季薰

金泉郡助馬面江曲洞 金敎[illegible]場 主 金致珍

金泉郡果谷面陽角洞 崔在璨

金泉郡果谷面光明洞 呂煥珉

金泉郡代項面德田洞 鄭雲鎔

金泉黃金町 文基永

金泉郡鳳山面禮智洞 吳漢根

金泉郡金泉面錦町 金泉郡改良麴子組合 電話二一七番

金泉旭町 穀物 精米 肥料商 官鹽 船南商會 主 林長洙

金泉郡開寧面東部洞 裵永基

金泉郡鳳山面信洞 朴宗根

金泉南山町 呂煥玉

金泉郡甑山面 職員一同

金泉郡大德面 職員一同

金泉郡甑山面靑岩寺 住持 金大雲

金泉郡知禮郵便所長 北川正太

金泉郡大德面中山里 文箕鉉

金泉郡大德面鳳谷寺 李碧山

金泉郡大德面[illegible]里 金東圭

金泉郡甑山公立普通學校 林[illegible] 宇[illegible] 貞[illegible]

金泉郡知禮酒造組合 組合員一同

金泉郡知禮面長 文炳[illegible]

金泉郡知禮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金泉郡知禮金融組合 理事 孫振弼

金泉郡知禮面[illegible]谷里 李源浩

金泉郡知禮面新亭里 金鳳漢

金泉郡知禮面[illegible]田里 金贊遠

金泉郡知禮面嶺谷里 李炳[illegible]

金泉旭町九五 綢緞布木 直輸入商 德豊恒 電話二一〇 振替釜山二一九四八

金泉郡石峴面九城里 石井酒造場

金泉郡[illegible] 李[illegible]洞

金泉郡大德面[illegible]里 金[illegible]

金泉郡大德面[illegible]里 文[illegible]八[illegible]

金泉郡大德面[illegible]里 朴[illegible]

金泉郡大德公立普通學校長 朴[illegible]海

金泉郡甑山面[illegible]里 金[illegible]

金泉郡[illegible]山面[illegible]里 李[illegible]田

金泉郡知禮面[illegible]谷里 李[illegible]士[illegible]

金泉郡知禮面[illegible]里 [illegible]

金泉郡知禮面新坪里 李[illegible]律

金泉郡知禮面[illegible]田里 李白山

金泉信行商會 裵[illegible]李

金泉郡鳳山面太和洞 有志 李赫相

金泉果谷面夏江洞 酒造所 李應洙

金泉郡甘川面光基洞 穀物精米所 李潤洙

金泉郡代項面大龍洞 共信穀物商店 主 金鎭九

金泉郡開寧面東部洞 禹沂植

金泉郡金陵面高谷洞 面協議員 學校評議員 金峻泰

金泉郡牙川面東佐洞 鄭永穆

金泉錦町 技術本位 セヤザキ寫眞館 館主 瀨谷武雄 出張員 林學洙

金泉郡釜項面斗山里 面協議員 朴丁夏

金泉郡釜項面事務所 面長外職員一同

金泉郡石峴面 面長外職員一同

金泉郡南面事務所 面長 林鍾洙 外職員一同

慶北金泉黃金町 金泉消費組合 專務理事 黃義準 電話二〇八番

金泉金曜會

金泉郡 各産業團體 職員一同

金泉大和町 司法代書人 洪在淑

朝鮮日報社金泉支局 支局長 全東成

慶北金泉本町一三二 內外國紙物 各種板紙 及文房具 慶北紙物商 主 曹文鎬

金泉錦町 大興洋襪所 主 林正淳

京釜線金泉本町一二二 綢緞布木 韓國鉉商店 電話二一四番

金泉城內町 最新式 學生靴 大昌洋靴店 主 崔一用

慶北金泉本町一三二 和洋家具 各種木製品 進興商店 主 柳春植

慶北金泉郡金泉面錦町 元昌商會 主任 裵羅德 電話二六五番 鴻允

慶北金泉黃金町 牛皮 大商 李俊業

金泉旭町 永和商業株式會社 社長 裵度潤

金泉黃金町三八 信興商店 主 鄭舜逸

金泉南山町 朴喜彰

金泉錦町 金琪振商店 電話一二七〇三番

金泉大和町 東海生命保險相互會社 社員 文星煥

金泉郡果谷面光明洞 呂永復

慶北金泉本町 內外國紙物 金泉紙物商會 主 林市造 電話二六八番

金泉錦町一五一 仁宣醫院 院長 姜錫俊 電話二六四番

金泉驛前 大和旅館 主 韓在五 電話一三八番

金泉大和町 醴泉旅館 主 金南分

金泉城內町 料理屋 長春館 主 金炳球 電話一六五番

金泉本町 金泉酒造株式會社 社長 高德煥 電話五二番

金泉城內町 朝鮮料理 明月館 主 金德守

金泉位良面 面長 李仲宰 外職員一同

金泉郡農所面 面長 文顯奎 外職員一同

金泉郡助馬面 面長 金敎淳 外職員一同

金泉郡開寧面 面長 許赫 外職員一同

金泉郡牙浦面 面長外職員一同

金泉郡禦侮面 面長 金國 書記 金基 書記 金相主 書記 金景植 書記 朴喜壽 書記 金奎錫

金泉郡代項面 面長外職員一同

金泉郡鳳山面 面長 崔建鎬 外職員一同

金泉郡甘川面 面長 朴菁用 外職員一同

龍宮公立普通學校 校長 向山鬼 外職員一同

金泉郡農所面新村 李鍾鐸

金泉郡開寧面東部洞 裵鍾燮

金泉郡甘川面道坪洞 酒造所 崔萬輸

金泉郡農所面 農南酒造場 支配人 金添吉

金泉本町 金陵印刷所 主 黃義弼 電話一三七番

金泉郡助馬面新安洞 篤志家 宋在洙

金泉郡 牙川面事務所 面長 全在洙 外職員一同

舒川

舒川面支石里 趙南天

舒川面 職員一同

舒川面堂丁里 張學淳

舒川面舒川里 金東淳

舒川面舒川里 金容[illegible]

舒川面長 久[illegible]會

西南面東東里 元亨常

馬東面永東里 金庚敏

西南面玉山里 尹鳳熙

西南面玉山里 羅宇河

西南面玉山里 尹柱英

西南面玉山里 尹淡

西南面玉山里 羅東煥

西南面南田里 羅允河

西南面南田里 尹柱漢

西南面漢城里 金景錫

舒川面新松里 朴宇錫

舒川面新松里 [illegible]河

花[illegible]面長 劉禹鍾

花[illegible]面城內里 曹秉直

西南面 職員一同

西南面南田里 羅海龍

舒川面新司里 羅[illegible]錫周

吉山 [illegible]組合

吉山 李寧武 精米所

吉山 朴炳俊

舒川面長 林鍾九

西南面南田里 羅秉善

舒川邑 綢緞布木 金永來商店

舒川邑 永[illegible]印刷所 金永[illegible]

舒川邑 金[illegible]福 自轉車店

[illegible]山面長 黃[illegible]敎

時草面長 具秉定

時草面新谷里 具秉武

時草面新[illegible]里 具孟[illegible]

舒川各官公署銀行會社 職員一同